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착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1월 16일 (토) 제 1755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한다!

CT, 미국 교도소사역 현황과 출소자 사회복귀 돕는 선교단체 소개

19세기 초에 복음주의자들은 교도소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프라이를 가장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공황과 복음전도를 위해 교도소 사역을 지원하거나 직접 하고 있지만,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교회는 매우 적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2016년 통계를 보면, 미국 교회 다섯 가운데 넷(80%)은 최근에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의 교회가 형사사법제도개혁에 참여했다고 말한 아프리카계 목회자(42%)는 백인 목회자(16%)보다 2.5배 더 많았다.

피코내셔널네트워크(PICO National Network)는 이러한 통계수치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교인들에게 대량 구금과 총기폭력 현실을 알리기 위해 수십 명의 흑인과 라

틴계 목사들로 구성된 리브 프리(Live Free) 캠페인을 해나가고 있다. 피코는 2010년에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부터 익스포넨셜 컨퍼런스(Exponential Conference)와 어바나(Urbana) 같은 복음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초교파적으로 대량 구금 정책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들과 가족 그리고 전과자란 낙인을 안고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을 소개해준다(How Churches Change the Equation for Life After Prison: One of the hardest days of incarceration may be the day it ends. The church can be there to make a difference).

리브 프리의 디렉터인 마이클 맥브라이드는 “사람들에게 사법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말한다.

교도소선교회가 교인들을 참여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은 자비 사역이다. 예컨대 엔젤트리 프로그램은 기부자들이 재소자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도록 고무시킨다. 맥브라이드의 아내도 여릴 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교도소선교회는 2016년에 옹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신설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교도소선교회는 18명으로 구성된 ‘신앙과정의협회(Faith and Justice Fellowship)’를 발표했다.

회원의 대다수가 크리스천이고 초당파적인 정치인으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는 “특정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의무가 없다.” 이 네트워크는 “공동체와 희생자와 범죄자



들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달성하기 위해” 헌신한다.

2015년, 교도소선교회 옹호팀 대표인 크레이그 라로쉬는 대표 척 폴슨의 이름을 딴 의회 특별 태스크포스를 지원했다. 교도소선교회는 또한 몇몇 연방 입법개혁을 주도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에 찬성하는

보수적인 의원들을 후원했다.

연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또 하나의 단체로는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RLC)가 있다. ERLC는 2016년도 입법 활동 핵심과제로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일순위에 올려놓았다.

ERLC는 연방차원의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

하면서, 동시에 크리스천들이 대량 구금 정책의 실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회들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때”라고 ERLC의 러셀 무어 대표가 말했다. “이것은 단지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서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잘못된 제도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미아 위커는 기독교공동체개발협회(CDDA)의 대량 구금 정책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월드릴리프가 후원하는 사법정의 콘퍼런스에서 위커는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재소자를 만날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말했다.

해마다 6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교도소를 나온다. 일단 출소하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3면으로 계속)



다가서는 방법 알면 복음 전할 수 있다!

채처리더스컴, 밀레니엄목회자에게 듣는 밀레니엄세대 접근원리 5가지(상)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Brandon Hilgemann)이고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밀레니엄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한 최고의 설교자가 되기 위한 10년 동안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개혁에서부터 미국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까지 모든 규모의 교회들에서 일해 왔습니다. 저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특권을 누리는(entitled),’ ‘눈송이(snowflake),’ 나약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며 밀레니얼세대를 지적하는 표현)’ 아기들 중 한명입니다. 저와 같은 밀레니얼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다가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5 Ways To Reach More Millennials At Your Church).

밀레니얼 세대에는 불공평하고 전형적인 표현들이 여러 가지 따라옵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리는 참여한 것만으로 트로피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거나 부모님의 지하실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일부 전형적인 언급이 어떤 밀레니얼 세대를 잘 표현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경향을 깨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무서운 전형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때를 지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와 밀레니얼 세대인 제 친구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인/티/뷰 제트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EM)

16면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714) 33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북스톡 / 성경 / 신학 서적 / 기쁜 / 교재 / 영성서적 / 영성기초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0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lenheim Terrace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gbook.com / cbc@1919.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영성공역기, 생가독집 수문 제작, 탁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8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발행인 칼럼 ●

진짜 실력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 한국이 아닐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UN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DSN)"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각 나라의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54위이다. 미국은 괜찮을까? 19위라고 한다. 각각 국민소득에 순위가 못 미치는 결과이다. 올해의 1위 타이틀은 작년 이어 핀란드라고 한다. 핀란드의 국민소득은 10위권에서도 한참 멀다. 하지만 그들에겐 환경을 뛰어넘는 여유로운 태도가 있다. 특별히 정부를 신뢰하는 태도가 뛰어나다고 한다.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태도에 달려있다. 각각 다른 주인을 섬기는 두 하인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사람은 물을 통해 기득감이든 사람이든 금방 다 써버리니 계속 물을 길어 나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길어 가져다 채워간 물을 사람들이 잘 쓸 생각을 하니 물을 길러오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똑 같은 환경이었지만 태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뉜 것이다.

이력과 경력이 아주 좋아서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이 아니라 겸비한 태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 교회를 알고 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보여주셨던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담임목사 청빙에 태도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태도를 큰 기준으로 삼은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목사님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교인들이 좋아한다. 얼마 전 30대를 조금 넘는 영아권 청년사역자를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한인 장년 예배의 설교자로 세운 적이 있다. 적잖이 걱정되었다. 지금까지 한국말 설교는 단 한번 해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밝은 태도로 전한 바른 복음은 나이와 언어를 훌쩍 뛰어넘는 깊은 감동을 남겼다. 태도는 그 사람의 어떤 재능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그 사람의 심각한 한계를 극복케 한다.

리더십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벌이는 지그 지글러(Zig Ziglar)에게 있었던 일이다. 캔사스시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도시의 공항에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는 그 직원에게 "아주 멋진 일이군요"라고 말했다. 불평을 들을 준비를 하고 직원이 놀라서 "이것이 멋진 일이란이요?"라고 물었다. "물론이지요. 비행기가 취소된 데에는 그만큼 중요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겠지요"라고 답변했다. 그 항공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음 비행편도 취소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멋진 일이군요. 제가 이 훌륭한 공항에서 당신들이 제공할 공짜 커피를 마시면서 읽어야 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니 정말 멋진 일이 아닙니까?" 어려운 방에 물 앞에서 보여준 지그 지글러의 긍정적인 태도는 리더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이다.

언제까지 환경을 맞출 것인가. 언제까지 재능 없음과 한계 있음과 방해 많음을 한탄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환경과 재능과 한계와 방해를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쉽게 그리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태도이다. 그 사람의 실력은 무엇으로 가름하겠는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골리앗이 지닌 체구(體軀)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찢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날은 철 유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러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나. 다윗의 체구와 무기는 미미(微微)하였다. 그러나 그 당당하고 밝고 겸비한 태도가 승리를 가져왔다. 태도가 진짜 실력이다. 태도를 바꾸면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남다른 태도라는 남다른 무기를 가진 진정한 고수(高手)인가?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는 겸손문화 "안테라겐"

BBC 보도... 겸손과 적절함 담겨 스웨덴 사회통제장치로 작용

높은 소득이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인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안테라겐(Jantelagen, 안테의 법칙)이라는 뿌리 깊은 문화 코드 때문이다(Is boasting good or bad for business?).

스톡홀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외스테르말름(Östermalm)에서는 개인 요트와 수상 카테일 바가 마리아에 가득하다. 인근의 가로수가 줄지어 선 대로 스트란드베겐은 스웨덴 수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뷰티크 레스토랑을 자랑한다. 근처에선 호화로운 사무실과 회원제 술집으로 들어선 18세기 건물이 화려하게 장식과 위용을 뽐낸다.

이 지역은 가을 햇살을 흠뻑 적시는 명품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케팅 분야에서 시니어 직급으로 일하는 로버트 잉게마르손(30)은 재산에 관한 질문에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기에 내 수입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주식에 쓴다. 투자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쇼핑을 나온 빅터 헤세(24)는 조만간 스웨덴의 주요 브랜드를 알리는 국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수입에 대해 물었지만, "기밀"이라고 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국제 기준보다 세금은 많고 소득 불평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1990년대 이래로 계속 커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의 4배를 벌고 있다.

높은 소득은 많은 나라에서 성공의 징표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돈 자랑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부유한 스웨덴 젊은 층과 인터뷰하기는 쉽지 않았

다. 이들은 비공식적으로는 별장, 요트, 스포츠카, 나이트 클럽에서 마시는 샴페인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일반화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자랑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죠." 인터뷰 과정에서 받은 이 문자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정서를 대변하는 듯했다. 인터뷰에 동의해



겸손한 삶으로 유명한 이케아 창립자이자 억만장자 캄프라드

높은 소득이나 부에 대해 자랑하지 않아 뿌리 깊은 문화코드... 이민자들까지 수용

놓고 "너무 바쁘다"고 피하거나, 바람을 맞는 이들도 있었다.

자신의 재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행동인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왜 스톡홀름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로라 아킨메이드 오케스트럼은 스톡홀름에서 10년 넘게 지내며 스웨덴 문화에 관해 글을 쓰는 작가다. 그는 스웨덴에서 "돈은 몹시 불편한 주제"라고 말했다. 부를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낮은 사람과 급여를 의논하는 것도 금기시된다. 스웨덴 사람들에게겐 실제로 "색스같이 우리 몸"에 대한 대화를 더 편안해했

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한 스웨덴 언론인 슈티나 달그렌(28)도 이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에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응원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스웨덴에서 월급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급여에 대해 묻지 말아야 해요. 돈에 대해 묻지 말아야

Secret of Living Well)'이라는 책에서 이 주제를 탐구했다. 그는 "안테라겐은 스웨덴과 많은 노르딕 사회에 존재하는 무언의 사회적 규칙"이라고 했다.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불필요하게 자랑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이죠... 이는 집단 안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테라겐은 영어로는 '안테의 법칙'으로 번역된다. 1933년 노르웨이계 덴마크인 작가인 악셀 산데모제의 소설에 등장하는 '규칙을 잘 지키는 마을' 안테에서 이름을 따왔다. 스코틀랜드-노르웨이 아카데미에서 연구하는 스티븐 트로터 박사는 이러한 정서는 북유럽, 특히 농촌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존재했다고 말했다.

"안테라겐은 사회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단지 부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거나, 자신의 처지보다 더 과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범입니다."

겸손과 적절함을 칭송하는 약칭인 안테라겐은 호주와 뉴

질랜드에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힐끔힐 때 쓰는 말인 '키 큰 양귀비 신드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양동이를 탈출하려는 게가 시샘하는 동료들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다시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게 같은 정신(crab mentality)'라는 말을 사용한다.

많은 문화평론가들은 이와 같은 금기의 상당 부분이 안테라겐이라는 뿌리 깊은 북유럽 규범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규범은 자신을 결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 규범을 어기는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오케스트럼은 자신의 책 '적당한: 스웨덴 삶의 비밀(Lagom: The Swedish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외) (323) 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외)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외)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 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 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 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 (917) 588-2934 / (917) 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 588-2934, (917) 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한다!

<1면에서 계속>
 많은 출소자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고 굳어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거처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힘든 씨름을 한다.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출소 후 임대주택 입주불가 판결을 받기도 한다. 몇몇 주에서는 출소한 흉악범죄 전과자는 극빈자 식량 배급 표마저 신청할 수 없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석방 출소자는 투표도 할 수 없고, 건강의료보험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혜택도 받을 수도 없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도 없다고 위키는 말한다. “출소 후 자살을 시도했던 두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출소자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소 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보니 교도소로 돌아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몇몇 변호사가 CT에 말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회에 받을 디더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 최근 캐피톨 에어리어 사회복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공무원들과 비영리단체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출소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게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이 회의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에서는 600명 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가장 큰 이유는 교도소 안에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교회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그릇된 공포나 용서에 대한 부적절한 가르침 같은 것들이다. 재소자의 입장에서 출소 후 사회복귀는 도와주지 않고 교도소 안에 있을 때만 봉사하는 교인들에게 시큰둥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재소자들의 생각”이라고 개디가 말했다. “그들은 교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희생을 하나 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보다는 나은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콜리에서 이종언어 교도소 사역단체인 푸엔테스를 운영하는 산디 벨레스가 말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돌보던 재소자가 출소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사례로, 출소 후에도 계속 도와줬지만 출소자가 다시 마약에 빠지자 손을 떼 자원봉사를 위키는 떠올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위키의 아주 친한 멘토였던 노엘의 경험이다. 노엘은 그때 아주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사실 노엘도 20대 때 잠시 교도소 생활을 했다. “교회가 답입니다.” 노엘이 말했다. “그런데 교회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원을 찾으려는 한 단체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공동체개발협회(CCCA)다. CCA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교인들을 교육시키기 원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2015년에는 전국 교회를 두루 다니며 네 차례 영화 상영 행사를 주관했다. 영화를 통해 교인들에게 형사 사법제도에 대해 알려준 다음, 간단한 보고와 함께 피드백 시간을 갖는 행사다. CCA는 2016년 2월에 제3회 ‘함께 연대하여’를 열었다. 재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옹호하며, 대량 구금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연례행사다. 크리스천들이 빈곤과 인종관계와 같은 주제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영상 시리즈 ‘어번 엔트리’의 다음 편은 대량 구금을 주제로 다루면서 위키

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사람들이 위키의 이야기를 듣고 구금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스티븐 린 감독은 말했다. 최근 교도소선교회는 ‘세컨드 찬스 프로젝트’(Second Prison Project)를 시작했다. 이 단체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의 관계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트윈시티와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세컨드 찬스 5K(Second Chance 5K)’ 행사를 열었다. “우리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6,500만 미국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라이스 마이누스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내년 주요 목표는 사업주, 특히 크리스천 사업주들이 전과기록 보유자에게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교단체(SPP) 역시 전과기록 보유자들과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잇달아 지부를 설립하고 있다. 각 지부는 전과기록 보유자들을 돕고, 옹호하고, 지도하며, 그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지속적으로 깨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결국 전과기록 탓에 여전히 사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에 들려주게 된다.

시론

자화자찬(自畫自讚)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최근 청와대의 실세 3 실장, 즉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들이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임기의 2년반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기의 시기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찬란한 미래를 향한 토대를 놓았다고 했다. 이 기간에 경제가 부흥했고,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것이며,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므로 안보를 튼튼히 하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임기 반 동안 거둔 업적을 평가하면서 그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를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기를 이루었다고 했다. 이들의 평가의 공통점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실제 나라의 형편은 판판이다. 경제와 고용 모두 최악인 상황이고, 북한은 더욱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심지어 미국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보의 빚을 다 풀어헤쳐놓고, 마치 전승자를 뜨겁게 맞이하는 패배자처럼 북한의 야만적인 정권에 납작 엎드려 그 비위나 맞추고 평화를 구걸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돌로 나뉘어 매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 서초동 법원 촛, 여의도 정치촌에서 이루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양편의 주장을 소리높이 외치는 상황이며, 교육현장에서는 젊은 고교학생들이 더 이상 좌파의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저항운동이 날로 각 학교로 확산되는 상황이고, 종교계도 서로 분열되어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업적을 미화하면서 자화자찬할 수 있던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미래를 향한 국가의 사회시스템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 즉,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계를 뒤엎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시스템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은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림에 대한 자화자찬이며, 남은 임기 동안 새롭게 놓은 국가의 시스템의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천명하는 다짐은 이를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향한 아주 대담한 공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러한 그들의 그림을 그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성격이상 증세이다. 심리학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림, 누가 보아도 제대로 그려진 그림이 아닌데도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도취되어 자화자찬하는 증상이 심할 때 이를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NPD, 나르시시적 성격이상)으로 간주한다. 나르시시즘이란 주로 다른 사람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지나친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나르시시적 성격이상증은 이들이 스스로를 남들보다 자기들은 우월하다는 우월감과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자기들은 남들보다 독특하고 특별해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기들끼리만 뽐내야 한다는 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항상 남의 주목을 받기를 추구하고 자화자찬(self-praise)하는 자들이며, 권력과 성공 지향적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남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보편적 공감대 결핍증자들이다.

이러한 성격이상을 가진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지도자일 때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며,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 사회, 국가를 망쳐 버리고 만다. 자신의 그림이 형편없음을 자인한 겸손한 사람들의 자화자찬은 그래도 일회성적인 응석정도로 혹은 자신의 개면적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조국 사태와 대통령 임기 반의 전환점에서 보여준 자화자찬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현 한국의 문제인 정권의 주도세력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일급 참모들, 그 정권을 떠받치는 정치세력과 이런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반 세력들의 NPD는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 자체이다. 그들은 자기도취에 빠져 자기들만의 잔치상을 벌려놓고 희희낙락할 뿐 그들을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저들을 민망하게 여기며 조롱하는 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혹시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잔치가 이렇처럼 NPD중증에 걸려 있는 자들의 잔치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잔치가 심지어 교회의 머리되시고 우리 각자의 삶과 역사의 심판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NPD 중증 환자들의 자기당착적인 잔치로 보여진다면 정말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청사진이며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기준인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가서는 방법 알면 복음 전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런 젊은 사람이 없다면, 적어도 장로나 능력 좋은 지원자 중에서,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1. 밀레니얼 세대를 단상에 세우세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회색 머리의 사람들이 단상에 있고 회중들 역시 회색 머리의 사람들일 때, 우리는 거기에 잘 맞는지 염려하게 됩니다.

더 젊은 사람들을 단상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 밀레니얼 세대의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당신이 스태프 중에 그

밀레니얼세대를 단상에 세우고 재능 사용 신앙과 삶의 고난과 갈등 진실하게 표현

우리에 대해 당신의 교회가 단지 어르신들의 클럽이 아니며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는 경험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다가가는 교회들을 보시고, 만약 그곳 중 젊은 사람이 단상에 없는 곳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2.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하세요.

우리는 진정성을 갈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삶의 모든 것이 장밋빛인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꾸며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기꾼을 혐오하며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회의적인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짜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진한 것처럼 말하기를 그치고 민감한 주제의 주변을 맴돌지 마세요.

당신의 단점과 당신 신앙의 몸부림들에 대해 불편할 정도로 연약한 태도를 보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하는 동안 당신의 불안전함과 얼마나 계속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삶의 영망인 이슈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다음호에 계속>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카이로 방문 소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서 하룻밤을 자고 성지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제일 먼저 피라미드와 스피נק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는 피라미드를 보며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마음

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거대한 피라미드 두 개가 거대한 성처럼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피라미드는 한 개 두개가 아니었고 크고 작은 것이 6개나 있는 것을 보게 되

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장관이어서 와! 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 저는 그곳에 서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왕과 왕비들의 무덤으로서 헛된 미신에 관한 생각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을 믿는데 그것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에 태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피라미드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시체를 안치하게 한 것은 태양신이 언젠가 자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시체를 썩지 않게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게 하고 태양신에게 자신

을 의탁하며 피라미드를 지은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이런 피라미드가 130여 개 있었는데 지금은 4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다는 4500년 전에 지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거대한 피라미드가 필요 없고, 시체를 썩지 말라고 보존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그런 것들을 만들 엄청난 물질과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습은 엄청나지만 피라미드에는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피라미드의 모습은 우리에게 세상의 자랑을 따

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웅대하고 멋진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사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필요 이상으로 마음껏 쓰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영광은 죽음과 함께 헛된 것을 자랑하는 피라미드가 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어도 복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이집트의 왕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소유하지 못

하였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행은 피라미드를 본 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와서 살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물겹게 목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한기형 목사

(하늘문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큰 감동이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항상 "Thank you!"를 잘 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도 감사가 그저 습관화 되어 있는 듯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퇴색해 가면서 감사가 줄어들고 뾰족 뾰족한 도발적인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는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선조들의 신앙을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나라가 번영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심판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4절에도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감사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있다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실패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보다 더 굶주린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주워 먹는 것도 부족한 현실은 인간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랑에 주려 사는 밑바닥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때에 탕자는 아버

뭇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몫까지 빼앗기지 않을까? 속상했습니다. 이러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오" 또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자식으로 키우는 목사님께서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아이들 돌보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모범적인 아이가 밤에 없어졌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온 몸이 흠투성이고 옷이 더럽혀져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했다 더 사랑할게. 더 믿고 살아갈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새롭게 각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장을 떼어 줄 것 같은 사랑, 눈이라도 빼어 줄 것 같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보세요. 감사하지 않게 됐나? 재산을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어 주고, 더구나 "이 는 죽었다가 돌아 온 내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칭찬해주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선적인 말로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해 들릴지도 모를 형편인데 "저는 품꾼의 하나도 못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둘째 아들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믿는 우리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더니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코스비(Crosby)라는 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하여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한 전도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송가 143장 4절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찬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구나 깨닫고 찬송시를 8000곡이나 작사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면서 새벽기도 하실 때 항상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남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사시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잔치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 갈 수 없었지만 탕자의 아버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정성 한 아들을 용서해주고, 지금 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

누가복음 15장 17-19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너무 유명합니다. 누가 보아도 첫째 아들이 모범생이고, 둘째는 탕자로 불려지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째아들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더구나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떠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 믿

지 집에 풍성한 음식과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그리워지게 되어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것도 내 것, 내 것은 물론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책망하고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 말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너까지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하니?" 야단을 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 둘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심각하셔서 기도하러 갔다 왔어요.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깊은 산속 공동묘지에 가서 가장 무섭고 처절한 가운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밤에 기도하고 왔어요" 할 때에 그를 끌어안고 "내가 잘못

이거든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주고 그 거금을 탕진한 아들을 용서해주고, 지금 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말한다. 그는 "칠레에는 학력, 스포츠, 예쁜 외모, 자동차, 학교, 집 등 성취를 자랑하는 나르시시즘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웃에 모델이 살아도 그 사람이 '제 사진이 잡지에 실린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어머니만한 성취를 이룬 사진작가가 옆집에 살아도, 그는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죠." "겸손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웨덴에서 좋아하는 것은, 안테라겐으로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한다. 그는 "칠레에는 학력, 스포츠, 예쁜 외모, 자동차, 학교, 집 등 성취를 자랑하는 나르시시즘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웃에 모델이 살아도 그 사람이 '제 사진이 잡지에 실린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어머니만한 성취를 이룬 사진작가가 옆집에 살아도, 그는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죠." "겸손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웨덴에서 좋아하는 것은, 안테라겐으로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지...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성공한 젊은 스웨덴인들이 안테라겐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부와 성공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베겐 대학의 비교정치학 부교수인 코넬리우스 카펠렌은 소셜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안테라겐을 향한 젊은 층의 반발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블로그와 브이로그는 군중 속에서 개인이 돋보이게 하는 '개인주의의 만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인

주의가 미국 등 서양 국가에서 보다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테라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싫다고 말한다"고 했다. 오케스트럼도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인정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자랑하는 게 보편화된 이후 개인적 성취가 두드러진 스웨덴인들이 자신의 성공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불편함을 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테라겐에 역눌렀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온라인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

압당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나는 이거 잘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안테라겐은 서서히 약화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안테라겐에 익숙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는 이민의 증가와 안테라겐의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나라다. 국민 25%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의 국적이 다르다. 그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성공을 축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친다"고 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탈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니콜 팔시야니도 비

슷한 생각이다. 그는 때때로 집이나 이탈리아 친척들과 논의했던 주제 중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나라다. 국민 25%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의 국적이 다르다. 그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성공을 축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이 보다 유럽화되고 자신의 문화를 가져와서 스웨덴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미국인

들에게 전혀 안테라겐 같은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안테라겐이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코르넬리우스 카펠렌 교수도 이 개념이 사라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미래에도 남아 있을 까요? 글썽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겸손 문화 같은 좋은 측면은 지속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재단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3년 전 칠레에서 스톡홀름으로 온 나탈리아 이리바라(35)는 이민자 중에서도 안테라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칠레에는 학력, 스포츠, 예쁜 외모, 자동차, 학교, 집 등 성취를 자랑하는 나르시시즘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웃에 모델이 살아도 그 사람이 '제 사진이 잡지에 실린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어머니만한 성취를 이룬 사진작가가 옆집에 살아도, 그는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죠." "겸손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웨덴에서 좋아하는 것은, 안테라겐으로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릇유다는 꽤 괜찮은 명망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의 뜻을 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서 가문에서 버림받을 정도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을 좇아 온 그에게 주님도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었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에 쓰임 받는 꼴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스승의 결정에 제자가 항의하는 말과 마음은 이미 배움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한 세상, 성도의 선택

오늘날 성도가 목회와 설교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목회자가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그저 이것은

마치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입었던 옷을 벗어 걸어 두고는 다음날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 그 옷을 다시 입을 것에 대해 전혀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고 잠을 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끝이 좋은 인생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 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형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고자 했을 때, 그 형을 숙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가릇유다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더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모략을

난다. 웬만해서는 흔들릴 것도 놀랄 것도 없는 무감각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죄와 부족함으로 당연히 회개할 일임에도 그 냉랭한 가슴은 회개를 지나쳐 모른 척 돌아서게 한다. 본교회는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 진실한 회개는 회복으로 인도함을 보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실수는 하지만 회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음을 확신할 때, 그는 끝까지 믿음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 한결같은

고, 떠들 이유도 없이 분명한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고, 끝을 좋게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구원론에서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끝이 좋아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 인생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것을 생각하듯이 좋아지는 결론을 향해 마음과 생각을 모으며 나아갈 것이다.

돌아오면 좋고 아름다운 것

믿는 부모님 사이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고, 나중에는 가릇유다처럼 목을 매달아 자살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방향할 수 있다.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찬사 제자들과교회)

끝이 아름다운 인생

- 선택, 회개, 구원

저의 '목회철학'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님이라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곳저곳에서 연말연시 목회계획을 앞에 두고,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십들 사이에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된다. 영적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이 새파란 청년이 신학교를 들어가지만 하여도,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전도사님'하면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었고, 나이 어린 전도사는 '내가 무엇 이관대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 장로님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던 그런 때가 있었다. 아름다운 은혜의 강수가 흐르던 시절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몸은 비록 유한한 이 땅의 세계에 두고 살지만 영원한 시간을 계산하며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의 일들을 '영원한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통과시켜야 한다. 구원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길이다. 죽음이러는 것도 그저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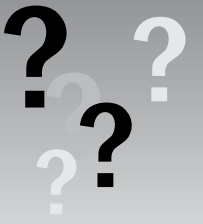
더욱 의지하면서 이방 여인과 우상더미 속에서 말년을 보내었다. 지도자의 타락과 실패는 지도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실패한 지도자로서의 삶의 결론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것이었다. 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끝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한이 더해갈수록, 책임지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나의 실패가 나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회개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며, 회개를 어지럽히는 생각을 하는가? 그들 가운데는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던 이들이 많은 것을 본다. 분명히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두가 시작한 축복과 영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끝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를 생각하면 사람이 한결같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품성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자신을 포함하여 인생의 한결같지 못함을 바라보며 생각되는 것은 늘 주의 은혜를 붙들고 씩씩이 회개하며 은혜 앞에 우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살다보면 나쁜 일과 약한 일들이 씩 없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그런 일상의 일들이 반복되다보면 우리 속에 독한 내성이 생겨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인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 아버지를 향해, 그 앞에서는 '아멘 아멘, 예 예' 하는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쪼다같이 저런 인간을 목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의 아들 셋이 듣고는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주일 큰 아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그달에 둘째도 셋째도 똑같이 문신을 하고는 교회에 앉아서 누가 말을 해도 거세게 항의하며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난리가 났다. 자기 자식도 못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관리한다고 불평의 목소리들을 터뜨렸다. 목사님은 목사가 성도보고 목회하지 아들과 목회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고통과 번민 속에 사임을 하고 말았다. 그 후에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원받았나? 아버지 대한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된, 아버지 대신 싸우겠다는 절절한 행동들이 그런 것이었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막내는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감출 이유도 없

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아니다. 큰 아들 같은 신앙이다. 아버지를 향해 염소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라고 말하는 본전타령 인생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다가 불교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끝이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뼈 속 깊이 새겨져야 한다. 과거가 지저분하고,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라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가 와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향해 지금까지 헌금한 것 다 내어놓으라고 소송도 한다. 사단마귀의 책략이며, 끝을 지지분하게 몰아가는 마귀의 초정이다. 마귀도 초정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나쁜 생각의 틈이 보이니가 들어가서 헤치고 나오는 것이다. 엄마가 5살 먹은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져 죽였다는 기사를 보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된다. 죄가 아무리 들어가고 정신질환자라 해도, 어떻게 자기 아이가 안보일 정도로 정신이 나갈 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교회의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시마다 성경읽기와 목상을 강조하십니다. 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kim

A: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기독교 서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The Holy Bible"이라 해서 성경을 광고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바깥에는 그 서점이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closed"란 표시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니 "The holy Bible closed" '성경은 닫혀있다'가 되더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최대의 비극은 교인들 80% 이상이 자기 삶에서 "The Holy Bible closed"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펼쳐보지도 않고 성경이 닫혀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가 80%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최고의 선물로 준 성경에 대한 무관심의 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

성경은 영혼의 약, 매일 읽어야

님의 말씀은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피스 방에 키우는 플랜트가 힘없이 푹 시들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물을 주어야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미안하다 깜박 잊어버려 네게 물을 안 주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sorry" 하며 즉시 물을 받아 흡족하게 부어주면 약 15분만 지나면 다 죽어가던 플랜트가 소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플랜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 세상에 부대끼며 살다보면 약해지고 시들시들 병들 때가 많습니 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부어지면서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이 순식간에 살아 납니다. 닫혀진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래도 잘 안 읽히면 매일 혈압약 먹듯이 약으로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혼의 약 (medication)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업계의 개척자인 헨리 포드(Henry Ford)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W. Woodrow와 친구로서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성경 한 장씩 꼭 읽자"고 서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청소년 시절에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 받은 후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신학까지 공부했으나 목사는 되지 않고 고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0명의 고아를 길러내면서도 1년에 4번씩 친구와 성경을 읽고 40년간 16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라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한 후로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 있을까?

끝이 좋은 것이 회복

지붕을 고치고 보도블럭을 고치는 노동자들 가운데, 항상 마칠 시간이 되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내일 아침에 또 할 건데, 왜 치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속한 회사도 결국은 엉망이 되고 저들의 미래도 밝지 못함을 본다.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의 결말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음을 본다. 어떤 사람은 말속에 늘 반복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당한 것이 너무 많아 서 이렇다'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착한 사람, 복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착한 사람, 복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기 탓으로 돌린다. 그렇게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할 때, 회복의 빛장이

열리는 것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데카르트네는 걸으면서 뛰면서도 생각하라고 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희미해질 때,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자 사단을 초청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이 좋아야 한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해도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다. 아무리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어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늘 끝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세상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야 한다. 선물 잔치를 벌여야 한다. 이것이 회복이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인도의 보즈푸리 비하리(BHOJPURI BIHARI)**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서, 전체 인구가 무려 13억 5천만명에 달한다. 그중 보즈푸리 비하리족은 대부분 비하르주의 인도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즈푸리 비하리족의 대부분이 충실한 힌두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비하리라는 말은 불교의 수도원(Buddhist monastery)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즈푸리라는 의미는 16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을 가리킨다.



인도만의 특성 중 하나인 카스트제도와 같은 복잡한 신분제도 때문에 보즈푸리 비하리족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하위그룹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룹은 브라민 그룹이나 힌두니즘을 숭배하는 사제그룹 등일 것이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는 수많은 힌두교의 신들을 널리 보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보즈푸리 비하리족은 촌락을 형성해 살아간다. 그들의 집은 흙과 대나무를 서로 연결해 짓고, 소의 거름을 이용해 백색도료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작은 오두막들은 짚

을 이용해 만든 지붕과 흙마루, 그리고 수공기구로 채워져 있다.

전체인구의 75% 정도가 인도의 평야경작지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그들 대부분은 농업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한다. 보즈푸리 비하리족은 다양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농작물을 생산해낸다. 인도의 주요 농작물인 쌀을 비롯해 옥수수, 밀, 보리, 지방 종자 등 풍부한 생산량을 자랑한다.

또한 광범위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 땅콩 등도 재배한다. 인도는 전 세계 망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망고 재배량이 많으며, 전 지역에 걸쳐서 캐슈너트와 땅콩, 각종 차들을 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와 사과, 양파, 사탕수수 같은 농작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량을 자랑하며 보통 1년에 3번 수확한다.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만

큼 인도에서 가족이란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다. 여자들은 18세가 되면 결혼시장(marriage market)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며 지참금이 접수되면 신부측 아버지가 집안을 결혼식이 열리는 신부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인도에서는 매년 다양한 종교행사가 열린다. 이런 행사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종교적 예술품이나 공예품 등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신앙

보즈푸리 비하리족의 70% 이상이 독실한 힌두교인들이다. 그들에게는 힌두니즘은 종교라기보다 철학에 가깝다. 3천년 이상을 거치며 인도 전 지역에 만연해있는 종교이며, 그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와 신앙 체계가 이뤄져 있다.

힌두교에는 기본적으로 브라마(창조자), 비슈누(보호자), 시바(파괴자) 등 3대 신이 존

재한다. 학자들은 3천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힌두교의 신을 섬긴다고 한다. 대부분의 힌두교 신들은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바(Shiva)의 부인은 많은 모습들이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마여신은 모성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칼리여신은 파괴자로 불린다.

힌두니즘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환생을 믿는다는 것과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그들의 신념이다. 카르마주의 법에 따르면 일생을 좋은 일에 바친 사람들은 죽어서 그 다음 생애에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믿으며, 반대의 경우 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심지어 벌레로써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종류의 성서가 있지만 대표성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들은 베다(Vedas, 브리만교의 교전)와 바가베드-기타(Bhagavad-

Gita, 인도의 서사시)로 종교 철학시로서 쓰여졌다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하르주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다. 문맹률도 높고 의료시설도 부족하다. 또한 농업도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다. 비하르주의 특이한 점은 아직까지도 여자보다 소가 더 귀중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인도의 1인당 소를 소유한 비율은 다른 어떠한 국가들보다 높으며, 소는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로 여겨진다. 힌두교의 특성 중 하나인 환생에서도 그들이 죽고 난 후 도살자로서 태어나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을 정도다. 오직 강력한 주님의 영적 힘만이 이 지역을 전도할 수 있으며 보즈푸리 비하리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Internet News****기독교 박해국가? 알고보니 기독교부흥 있어**

최근 국제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이 밝힌 기독교 박해국가 리스트가 역설적으로 기독교 부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확산 또는 많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한 국교회에서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나라는 교회나 기독교인이 아예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편견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려주고 있다. 대표적 이슬람 국가에서의 교회 상황을 살펴봤다.



알제리: 우선 알제리는 인구 99%가 이슬람 수니파로 구성돼 있다. 1%는 기독교나 유대교이다. 알제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교회 50개 중 14개의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다. 교회 폐쇄는 분명히 부정적 소식이지만 동시에 이 이슬람 국가에 공식 교회가 50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36개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에 폐쇄된 교회엔 '티지오우조우 순복음교회'가 있으며 교인만 700명이었다. 이 교회는 북아프리카 개신교회 중 가장 큰 교회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Church of the Full Gospel in Tizi-Ouzou'를 검색하면 역동적인 예배 장면이 나온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알제리 기독교인 상당수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라고 한다. 알제리는 파키스탄과 함께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국가다.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집트: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체제 하에 안전을 유지해왔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지난해 말까지 이집트에서 교회 168개가 새로 설립돼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 교회는 모두 합법적인 교회 건물 소유하고 있다. 168개 교회는 콥트교회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등으로 모두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다.

이집트개신교회 회장인 안드레아 자키 목사는 미국 크리스챤티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에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지금은 시작이며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개신교회에 정부에 설립 허가를 요청한 예배당 수는 1070개에 달한다고 크리스챤티투데이는 전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가 교회 설립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회가 생길 경우 주변 동네가 강한 무슬림 거주지라면 돌이 날아오는 공격도 감내해야 한다. 교회를 향한 군중들의 시위나 소요사태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모닝스타뉴스'는 올해 기독교인들에게 집단폭력, 위협, 체포 사건이 빈번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이집트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콥트교회 신자들이 극단주의 이슬람의 폭탄테러에 대해 용서를 선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담대하게 순교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감명을 받은 무슬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집트 인구는 9926만명이며 이중 콥트교회는 10%를 차지한다. 10%는 인구 1000만명에 달한다. 선교사들에 따르면 이들 콥트 기독교인들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다. 순교를 각오한 열혈 신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집트의 기독교 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이집트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 등장한다.

이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종자만 현재 80만명이 되며 이들은 지속적 박해의 대상이 된다고 알려진다. 이란 정부는 현재 '가정교회'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색출에 간간힘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란 무슬림에게 기독교 신앙은 이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오고 있어서 정부의 감시와 박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폭스뉴스는 지난 9월 27일 '이란은 교회 건물에 없애도 세계에 가장 빠른 교회 성장세, 대부분 여성이 주도'(Iran has world's 'fastest-growing church,' despite no buildings - and it's mostly led by women)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늑대 무리 가운데 양'(Sheep Among Wolves Volume II)에 대해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란 무슬림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모스크가 비어가고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며 "하나님은 이란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현장 사역자 말을 인용했다.

이란은 과거 1300년보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한 목회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역사상 최고의 복음주의자는 이란혁명을 주도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며 "그는 5000년 이란(페르시아) 역사를 황폐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목사는 "이란 교회는 깨어나고 있다. 건물도 재산도 리더십도 없지만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현재 이란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셀 수 없는 무슬림들이 출이슬람(exodus out of Islam)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140만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이며 원리주의인 와하비즘에 의해 건국된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 140만명이라는 기독교인 수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들은 현지인이기보다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교사들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인 지하교회도 암암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는 전 세계 49개국에 관광비자를 발급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자신의 종교행위를 사우디 안에서 할 수 없다. 또 십자가 등 기독교 상징을 나타내는 것도 불법이다.

공화당, '미니 지방선거' 참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 4개 주에서 5일(현지시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다. 공화당으로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연방 하원을 빼앗긴 이후 2연패를 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대도시·교외 지역에서 '반(反) 트럼프 열풍(fervor)'이 불었다"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등 경제호황에서도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는 전체 50개 주 중 버니지아주·켄터키주·뉴저지주·미시시피주 4곳에서 열린 '미니 지방선거'였다. 그러나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라 '대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전통 강세 지역인 미시시피주에서만 공화당이 이겼을 뿐 나머지 3개주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미국 언론들은 켄터키 주지사 선거와 버니지아주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전을 거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 켄터키주를 찾아 선거유세에 나섰다. 이 패배를 막지 못했다.

WP는 "대도시 교외지역에서의 민주당 약진이 공화당에게 깊은 시름을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도시 지역에서, 공화당은 농촌 지역에서 각각 우세를 보였다. 그 중간의 교외지역은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중간지대였다.

CNN방송의 2016년 미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교외지역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각각 49%의 지지를 얻으며 동물을 기록했다. 하지만 교외 지역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개표 결과, 켄터키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루이빌과 2위 렉싱턴에서 민주당 몰표가 나왔다. 대도시와 교외지역의 민심을 잃으면서 공화당은 텃밭이었던 켄터키주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다. 버니지아주에서도 대도시 주변에서 표가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25년 만에 주(州) 상·하원을 차지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적은 교외 거주 주부들이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의 주부들은 트럼프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어 민주당에겐 천군만마다. 자녀들을 축구장에 데리고 다녀 '사커 맘' 등으로 불리는 주부들은 본인 표 뿐만 아니라 부동심 표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WP는 전했다.

주부층을 포함한 '반 트럼프' 표심은 그의 거칠고, 충동적인 언행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는 거친 언행을 해도 고정 지지집단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가는 것도 변수다. CNN은 "트럼프 탄핵 조사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 현직 주지사 매트 베빈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투표 결과 재확인을 요청했다. 앤디 베서 민주당 후보는 49.2%의 득표율로, 48.8%의 베빈 주지사(48.8%)에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차는 5000여 표에 불과했다. CNN은 "전면적인 재검표는 이뤄지지 않으며 결과 재확인은 투표기록에서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트럼프 책임론'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결과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우선,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지역 이슈가

표심에 많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투표율도 낮았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켄터키 주지사 선거의 투표율이 42.16%로 추산됐다.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베빈 주시사는 인기가 바닥인 인물이라 그의 낙선을 트럼프나 공화당의 패배로 돌릴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켄터키 유권자들이 베빈을 거부한 것이지, 공화당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주의회를 탈환한 버지니아주도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패배를 안겼던 지역이다. 버지니아주에서의 이번 공화당 패배가 충격적인 뉴스는 아니라는 뜻이다.

옛 동독주민 '동서격차 줄었지만 2등 국민'

2017년 9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제3 정당(12.7% 득표)으로 연방 하원에 진입했다. 현재 독일의 16개 주 의회에 모두 진출한 AfD가 맹위를 떨치는 곳은 동독 지역이다. 지난 9월 동독 지역인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10월 튀링겐주 지방선거에서 AfD는 제2정당으로 부상했다.



2013년 발족된 AfD는 당초 반(反)유럽연합(EU)을 기치로 내세웠으며 점차 반난민, 반이슬람 정책을 자극하며 세를 확장했다. 표면적으로는 나치와 거리를 두지만 AfD 내에서도 극단적인 세력은 사실상 나치와 거의 유사하다. AfD에서 인기있는 정치인 베른 회게(47·튀링겐주)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있을 정도다.

오는 9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독일 통일을 시작으로 유럽 내 공산주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동독이 서독 체제에 흡수된 1990년 10월 통일 이후 29년이 흘렀지만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치유되지 않았고, 이는 AfD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통일 이후 동·서독 격차는 크게 줄었다. 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 수준은 서독의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5%까지 따라붙었으며 올해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옛 공산주의였던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 동독 실업률은 한 때 18.4%에서 지난해 6.9%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지역 주민들의 57%가 실질소득과 구매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2등 국민'으로 여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동독 주민들이 "통일이 성공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독일 역사학자 일코 자샤 코발츠크는 AP통신 인터뷰에서 "베를린 붕괴 이후 헬무트 콜 총리는 '꽃이 만발한 풍경'을 약속했고, 동독 주민들 역시 통일에 대해 기대가 너무 컸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일사회는 동독 주민들의 소외감과 극우 부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격차에 주목하던 관점을 반성하면서 동독 주민들이 겪었을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부상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달 '통일의 날' 기념식에서 "통일은 진행 과정으로 완수는 끊임없는 임무"라고 언급했듯 독일에서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6. 이은택 목사(1899-1990)

이은택은 1899년 4월 27일 평남 강서군 증산면 오산리에서 출생했다. 여덟 살에 교회 중직기를 한 그는 평양 인근 청산의 창신국민학교와 서울 배재학당을 거쳐 1921년에 서울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했다. 서울 아현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는 이화학당 졸업생 장강자와 결혼한 후 서울 궁정동감리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다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해 3년간 공부하고 1927년에 문과를 졸업했다. 1931년에 서울 만리현 감리교회에 부임하였다.

다음날 28일 일요일에는 정오에 학생예배가 있었고, 오후 1시에 야유회가 있었는데 밤 8시에 음악과 사교로 모였다. 선임된 연희 임원은 회장에 장세운, 서기에 김태선과 광정순, 총무부에 장세운, 조승학, 한순교, 김용택, 재무부에 한순교,



이은택 목사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일제에 투옥되던 이은택은 양주삼 총리사(감독)의 소개장을 갖고 아내와 1남2녀를 두고 1935년 7월에 단신으로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상항을 거쳐 시카고 게렛신학교에 입학했다. 이듬해인 1936년 4월에 미국 감리교 학교비연회는 그를 시카고한인감리교회에 담임목사로 파송했다. 조성학 목사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약 3개월간 예배를 인도하던 한승곤 목사를 이어 이은택이 본 교회를 섬겼다. 이은택이 부임하던 때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300명이었다. 여권 없이 피신한 망명객, 중국 여권으로 중국인으로 위장한 독신 투사들이 많았고, 카페테리아를 경영하거나 주방장, 요리사, 호텔 헬퍼로 취업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도 많았다.

주일학교

이은택이 부임한 첫해인 1936년에는 21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지만, 비정기적 교인과 시카고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교인을 합하여 총 교인 수가 45명이었다. 그해 연회는 6월 27일과 28일에 있었다.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사무처리를 하였고, 7시에 연회를 하였으며 9시에 토의와 강연이 있

었다. 다음날 28일 일요일에는 정오에 학생예배가 있었고, 오후 1시에 야유회가 있었는데 밤 8시에 음악과 사교로 모였다. 선임된 연희 임원은 회장에 장세운, 서기에 김태선과 광정순, 총무부에 장세운, 조승학, 한순교, 김용택, 재무부에 한순교,

행상

이런 가운데 교회 재정 형편이 어려워 이은택이 면허 없이 행상했다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풀려났다. 이태 탐스 감리사의 주선으로 시카고 시장에서 행상면허를 받아 면도날, 손톱깎이 등 물품을 도매상에서 사서 직장의 봉급날이면 찾아가 팔았다. 상당 기간 행상을 계속했는데 그는 자비량 선교사로 보인다. 1938년 3월 20일에 시카고 한인 예배당에서 강영문의 사회로 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시내에 거주하는 부녀와 아동까지 다 참여하였는데 장내는 울음바다였다. 윤기성의 피아노 반주에 강영문이 부고를 낭독한 후 일동이 3분간 묵상하였고, 임창모가 추도문을 낭독했으며, 윤기성이 노래했고, 박 필이 선생의 약력을 낭독했으며 김베시가 거국행을 노래했고, 김용택, 김 경, 정태은, 양일태, 김홍기 그리고 강영문이 차례로 추도사를 한 후 일동이 찬송가를 부른 후 이은택이 폐회 기도를 담당했다.

1939년, 시카고 맥코믹신학교에 입학한 김태목 목사가 이은택을 도왔다. 당시 교인수가 51명이었다. 그해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저녁 8시에 있었는데 방학을 이용하여 시카고에 노동하러 온 유학생을 포함하여 남녀 교우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은택의 사회로 찬양, 기도, 아동의 성경낭독, 찬양 그리고 연극이 있고 난 후 산타클로스가 예물을 나누어주었다.

1940년엔 교인의 수가 82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주일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 해 5월에는 예배당에서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이봉녕 선생의 추도식이 있었다. 애국가, 개식사, 기도, 반기식, 묵도, 양사공독, 추도사, 추도문으로 이어진 추도식에서 이은택은 기도 순서를 맡았다.

여성봉사회

1941년 이강자 사모가 중심이 되어 여성봉사회를 조직했다. 첫 회장은 강영승의 부인 김원신이었고 서기는 김태목 목사 사모였다. 본회는 교회지하실을 단장해 '실버홀'이라고 예배 후 한국 음식으로 친교를 주선했다. 그해 8월에 멕시코 맛단사스 거주 동포를 위한 구제금을 모금하였을 때 20여 명이 동참하여 총 55달러 25센트를 모았다. 대체로 4달러 이하를 기부한 반면 이은택은 박태현과 함께 25달러의 거금을 기부했다.

1942년에는 83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2인 이상 가족은 21세대였다. 그해 외국인 자산동결령으로 일본인들이 오하이오주 집단 수용소로 보낼 때 이은택과 월돌프 감독이 한인들에게 "나는 한인이다"라는 명찰을 달아 일본인으로 분변당하지 않도록 힘썼다.

캠프 맥코이

1944년 성탄절에 이은택은 한인교회와 재류 한인들과 함께 위스컨신주의 캠프 맥코이를 방문하고 일본군 포로 중에 한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선물을 전했다. 이에 이들 한인이 아래와 같은 감사장을 보냈다.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우리도 나라가 있고 자유의 몸이라면 그 즉시 달려가 동포 여러분 앞에 끌어 옳되려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나라 없고 자유 없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심중에 타는 애국심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연합국을 위하고 미국을 위하여 대전에 일할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일심협력하여 연합국의 대승리가 올 때까지 한국이 독립을 찾을 때까지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신년에 귀 교회 교우 제씨의 안녕을 축복하며 이만 그치나이다.

1945년
한인 일동 배상

글렌뷰 해군기지에도 한인 포로가 있어 본 교회 교인들이 위문을 갔다. 귀국하는 한인 포로에게 본 교회는 태극기를 만들어 주었다.

2차 대전 중 출석교인은 매우 적어 옥데일교회에서 매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이 나오지 않아 예배시간을 12시로 늦췄다가 오후 2시로 드리다가 3시에 예배를 드렸다. 1946년부터 교인이 늘기 시작했다. 최영록 목사, 김도식, 이규옥, 안병주 등이 유학을 모였다. 이 해에 주일학교가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해에 최초 자급 헌금이 있었는데 5명이 130달러를 헌금했고, 이외 헌금으로는 주일 헌금이 193달러, 특별기부금이 99달러, 전년 이월금이 74달러였다. 성기대는 1949년에 조직됐다. 김도식, 김광서, 이규옥, 방은호, 박영애, 김은태 등 새로운 유학생으로 구성됐다.

1951년에는 이민자 15세대와 유학생 28명을 합쳐 82명으로 등록 교인수가 집계됐다. 그런데 생활고나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 아이오와주에서 공부하던 한인 학생이 동료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은택이 나

섰다. 이은택이 시카고한인감리교회를 은퇴하기로 결정한 1964년의 4월 5일에 본 교회 주요 인물들이 시카고 한인장로교회를 창립했다. 그해 10월 10일에 그가 은퇴했으니 28년간 본 교회를 섬겼다. 그의 뒤를 이어 은준관 목사가 본 교회의 선교를 이었다. "내 주의 보혈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시험 받을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시작하는 찬송을 좋아했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 6:25-34를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1990년 9월 10일 91세로 시카고에서 영면했다. 그의 묘교 게렛신학교는 그를 기념하여 2002년 이은택 장학금을 개설하고 16만 불을 모금했다.

damien,sohn@gmail.com

1936년 도미후 시카고한인감리교회 담임 자비량으로 사역 1964년 시카고한인장로교회 설립 후 은퇴, 별세까지 섬겨



시카고 한인감리교회(1938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일용복음(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5:45(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7:30</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6:00(토)</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모은</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목: 오후 7:20(금)</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요일예배: 오전 9:45(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10시 50분 민 17장 8절 "이름만 모세가 중귀의 장막에 들어가 본 족려 짐을 위하여 내 아들의 지팡이에 손을 얹고 손이 내 발이 피어서 날카롭게 되었다."</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익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00</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제3편.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

들어가면서

(Thomas a Kempis, 1379?-1471)

1) 저자 문제

이 책은 필자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이며 실제적인 지침을 주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시절에 경건과 삶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성경을 따라 읽어갈 수 있는 최고의 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독교 역사 중에서 최고의 고전을 세 권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 그리고 중세 시대를 대변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최초의 원고에는 저자의 이름이 생략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학설이 구구하다. 아 켐피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판본은 1447년 판이었는데, 현재는 아 켐피스를 저자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공동생활형제단 사람들의 삶이 늘 그랬듯이, 토머스는 평생 그 공동체에서 살면서 수도생활, 교육, 성경과 신앙서적의 필사에 일생을 바쳤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이

1380년 켐펜에서 출생했다. 그의 본명은 헤메르켄 또는 헤메라인으로 ‘작은 헤머’라는 뜻이다.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395년 그는 공동생활 형제회에서 운영하는 데벤테의 학교에 갔다. 그는 필사(筆寫)의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그의 형 요한이 그보다 앞서 들어가 원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가 있던 츠블레 부근의 성 아그네스 산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원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는 형제가 같은 곳에서 수도사로 사역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두 형제의 인품이 고결하여 예외적으로 두 형제가 같이 수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토머스는 1413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429년에 부원장이 되었다. 이 수도원은 위트레히트의 주교로 선출된 다플트의 루돌프를 교황이 배척한 결과로 한동안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으나 토머스의 생활은 조용한 가운데, 예배와 저술과 필사활동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는 성경을 최소한 네 번 필사했는데 그 사본 가운데 하

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좇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며 신앙갱신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중세 후기의 ‘공동생활형제단’이 있다.

14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헤르트 후르트(혹은 게르크 그루트, Geert Groote, 1340-1384)가 부유한 상인의 삶을 정리하고 시작한 이 공동체는 성경 교훈을 내적으로 성찰하면서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외침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1400년대 내내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요청이 가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은 따르지 않는 교회에 대해, 공동생활형제단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배경 속에 중세의 보석 같은 이 공동체의 주요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생활강령 (Devotio Moderna)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존귀한 자 아베스

참고 성경: 대산 4장

유다의 자손 중 무명의 아베스가 두 절이나 할애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준다. 아베스가 누구인가?(역사4:9, 10) 아베스는 존귀한 자라 광고하며 어떻게 그가 존귀한 자 되었는지? 설명한다. 아베스는 고통이란 뜻이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수고로이 고생을 심하게 시킨 아이라고 이름까지 고통이라 지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고통 주는 애, 골치 덩어리라 자기 아이를 부르니 세상에 떨어지며 천덕꾸러기, 사랑에 목마른 무가치 인생이다.

그런 아베스가 고통 중에 살겠다고 구원자로 붙든 분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머니 형제도 어느 누구 하나 바라볼 이 없고 거의 흠리스 불구자 수준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조상을 불가능한 고통스런 삶 가운데 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돌보시는 전능자이시다. 아베스가 가진 것 아무 것 없어도 조상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라봄으로 그의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시작된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뢰어, 가로되, 원컨데... 소리질러 주 삼창하며 날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형편을 아뢰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 하사, 주님! 지지리도 복 없는 제 형편이시지요? 내게 복주세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복은 저에게 무엇이 복일까?

나의 지경을 넓히고, 자신의 답답한 환경이다. 전후좌우가 다 막힌 자신 처지가 미치도록 답답하다. 그 답답한 환경을 넓혀 나 숲 좀 쉬게 해주세요. 그 지경을 넓혀 숲통이 트이는 길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절박하게 구해주시라 부르짖는다.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생존의 위협의 극한 처지에서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목마르게 찾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자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 그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미미한 인생도 괴로운 자리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존귀히 됨을 보여주며 포로로 잡혀와 이방에게 동화돼가는 유다 백성에게 에스라는 종을 치며 외친다. 우리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이야. 전심으로 그 분을 바라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존귀한 제사장 나라로 환원하신다고!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분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주님!
세파에 시달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무니만 있고 고생스런 환경의 노예로 근심에 쌓여 주님을 때때로 놓침을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피할 그늘이십니다. 나의 안전한 포구, 나의 안식처, 나의 기쁨이심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께 돌아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소서.

주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 찬만, 기쁨 찬만으로 주신 분복들을 아름다운 나의 지경으로 지켜내어 최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 복이십니다.

heenlee55@hanmail.net

개신교 지도자들 회심에 영향...공동생활형제단 핵심가치 담야 중세시대 신비적 성향 지녔으나 삶과 신앙 일치시켜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고를 것이다.

그는 중세의 신비적 성향을 지니면서도 삶과 신앙을 격리시키지 않았으며, 성경을 과도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성적으로 추론하지도 않았다. 모든 이성을 믿음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성경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분주하고 헛된 야망에 부추김을 당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맑은 샘물과 같은 청량함을 선사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5세기 초(1427?)에 필사본으로 출현한 이래 곧 인쇄본으로 유럽각지에 소개되어 마틴 루터, 존 웨슬레, 존 뉴턴 등과 같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회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도 이 책은 기독교와 천주교인들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다.

1. 저자: 토머스 아 켐피스

책의 필사본 가운데 명시적으로 토머스가 저자라고 되어있는 것은 없다. 현재 브뤼셀에 있는 한 필사본에 “서기 1441년에 토머스 아 켐피스가 즈볼레 근처 성 아그네스 산 수도원에서 필사하여 탈고 완성하였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토머스가 필사했을 뿐이지 그가 실제적인 저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한 토론은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책의 내용은 분명히 공동생활형제단의 핵심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공동체의 창시자인 로테에서부터 이 공동체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수도생활을 하며 삶을 훈련했다. 그 중의 일원인 토머스가 이 공동체의 삶과 신앙을 잘 정리하여 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토머스 아 켐피스의 생애
독일의 신비사상가인 그는

나가 다름슈타트에 다섯 권으로 엮여져 보존되어 있다. 그는 성서의 교훈에 박식했고 그의 저서들에는 성경의 인용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에서 인용한 문장들이 풍부하게 나온다. 독서·명상·필사로 경건한 삶을 살다가 1471년 6월 25일 그의 나이 95세로 사망하였다.

3) 토마스의 삶의 배경으로 공동생활형제단

가성경교훈의 내적 성찰과 실천의 장

우리는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삶의 배경이 되는 공동생활 형제단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교회의 역사에서 중세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시대의 대명사다. 이른바 ‘중세 천년 암흑시대’라는 표현의 이유는 중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 좁혀서 말한다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

공동생활형제단은 후르테의 사후 그의 제자들이 테벤테를 비롯하여 쯔볼레(Zwolle), 캄펜(Kampen) 지역 등에서 후르테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공동생활형제단(The Brethren of Common Life 또는 Devotio Moderna ‘Modern Devotion’)으로 호칭하고 형제단이 준수할 생활강령인 “오늘의 헌신”(Devotio Moderna)을 제정하였다.

“오늘의 헌신”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지내는 것이다. 사제나 수도사도 공동생활 형제단에 가입할 수 있었고 일반 평신도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흥치모 교수가 언급하듯이, 그들은 주로 기독교 고전문헌(사본)을 복사하여 그것을 판 수입을 생활비로 지탱하였고 동지들의 적극적인 헌금은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어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www.cpcnl.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6: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친구들: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토요일 오후 8:30 토요일 오후 9: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중보기도: 화, 목, 금, 토, 일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빛의 이중성

우리는 빛에 대해서 별로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남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뭔가 내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규모 없이 살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빛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빛을 갚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는 적당하게 빛을 질 때 더 대우받는 사회구조이다. 물건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빛을 내어서 그 빛을 잘 갚아 나가면 신용이라는 것이 쌓여간다. 신용이 높아질수록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매우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빛은 잘 관리하

면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반면에 빛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사실,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큰 빛을 진 자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헌신적인 양육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수차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다. 그 때마다 무시 받고 천대 받던 수 많은 민초들과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물질들을 희생하였고, 자신을 초개같이 버리며 나라를 구한 우리의 영웅들

과 우방국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우리는 실로 그들에게 큰 빛을 쬐다. 우리는 후발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 왔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땅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사람들, 우리 앞서서 먼저 인권운동을 하여서 이 나라를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만든 인권운동가들이 있기에, 우리처럼 제대로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이 땅에서 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간다. 현재도 우리는 국가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사람이 빛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항상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위험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은 베푸는 선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 자량이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나 회사의 상급자가 자신 덕분이다른 사람들이 덕을 본다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훈계하고 결국 감질 하는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은 대접 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밖에 대접해 주지 않을까라며 불만 한다. 어릴 때부터 공주(왕자)처럼 대우를 받았거나 자기 본위적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회사나 남의 수하로 일하지만 자신이 일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요구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그 아이는 더욱 성숙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와 주위 사람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 주는가? 성경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하)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빛은 지라고 말한다(롬13:8상).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은 항상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이 빛진 존재라는 것을 각성할 때, 그 사람은 좀 더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 빛진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렐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다. “테렐레스타이”를 한 글 성경은 “다 이루었다”고 변

역하지만 ‘값을 치렀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으로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려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값인 벌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의 대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빛을 쬐었다는 고백(롬1:14; 8:12)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며 빛진 자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썩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전9:16)고 말하며,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묵묵히 복음사역의 길을 걸어갔다. 실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빛을 쬐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삶의 공간 속에 더욱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할’ 주제

제 25회 한국기독교평신도 세계대회

제25회 한국기독교평신도 세계대회(총재 박우승 장로)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8일부터 14일까지 LA와 멕시코에서 열렸다. 8일 저녁 6시50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열린 개회예배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형원 장로(상임회장) 사회로 열렸다. 김영식 장로(한국대표회장)가 개회사 했으며, 심재문 장로(미국사무총장)의 개회기도, 정영수 전도사(예배위원장)의 성경봉독, LA경신코랄(지휘 장진영)이 특별 찬양했다. 이어 원영호 목사가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행8:4-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원영호 목사는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첫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우선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세계평신도대회가 가는 곳마다 힘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둘째,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에 하나님을 허락하신 축복 부흥 내려주시는 모든 것이 잘되고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가서 헌신하는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하나님나라 확립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제25회 한국 기독교 평신도 세계대회 개회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복음이 전진되게 하고 한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일영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 했다. 이어 김법렬 장로에게 공로패를 박우승 장로와 심영식 장로, 최형호 장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원영호 목사가 환영사 했으며 박우승 장로(한국총재)가 인사, 김법렬 장로(명예총재)가 격려사 했다. 이어 황인상 LA부총영사, 권승달 장로, 홍명의 목사, 안필영 선생이 축사하고, 이영한 장로(미시건)가 성명서 낭독했다. 이날 예배는 천방욱 목사(KPC남가주하와이대회 은퇴목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9일 특강시간을 가졌는데 김

종명 장로(미주 원로장로회 회장)가 ‘성경암송의 유익과 요령’, 박동호 목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교회와 국가의 상생을 위한 개혁신학적 제안’, 그리고 박우승 장로(한울중고등학교 설립자 이사장)가 ‘한국형 근대사화 기독교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크루즈 선상에서 열린 폐회예배는 권승달 장로(상임회장) 인도로 시작, 김형원 장로(상임회장)가 기도, 이경숙 권사(읍영위원장)가 성경봉독, 여성찬양단이 찬양했으며 김법렬 장로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심영식 장로가 폐회사를 낭독했으며 박동호 목사(지도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성가단 단원들이 오프닝곡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있다.

“우리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멜로디로”

제 26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제 26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김용식장로) 정기연주회(지휘 조성환, 부지휘 조성원, 반주 이하늘)가 10일 저녁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막을 올렸다. 남가주장로성가단원들은 오프닝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주님여 이순을’, ‘태산을 넘어’를 선사했으며 테너 전승철의 ‘주기도문’과, 소프라노 박혜경과 전승철의 ‘I Believe’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장로성가단 중창팀과 혼성합창 등 다양한 순서로 찬양했으며 김민혁 씨의 트

럼펫 연주도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 정기연주회는 단장 김용식 장로의 환영인사로 시작됐다. 김 장로는 “한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축복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멜로디가 돼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을 전한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 담임)는 “우리 모두는 ‘사랑 한다’는 고백

과 복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또한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자. 시편에 나타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원히 여호와의 송축한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1992년에 창단돼 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통해 선교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베트남에 선교비를 지원해 뱀재성흥영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장로성가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나성한인교회(EM 체플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818)522-27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생터사역원 LA 27기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새 전문강사 10명 배출...최우수상 김금주 전도사

생터성경사역원 LA 27기 전문강사스쿨 졸업감사예배

생터성경사역원(어? 성경이 읽히지나 대표 이애실) LA지부는 LA27기 전문강사스쿨 졸업감사예배를 9일 오후 4시 하일소망교회에서 드린 가운데 10명의 새로운 전문강사를 배출했다. 졸업식에 앞서 드러진 감사예배는 김형철 목사(LA산울교회 담임, LA1기) 기도, 김덕수 목사(LA지부장) 설교, 강태동 목사(우리하나교회 담임, LA1기) 축도로 진행됐다. 김덕수 목사는 ‘원순잡이 에훗’(삿3:12-23)의 제목으로 “이번 졸업하는 열 분은 선택받

은 일꾼이다.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실 때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 ‘오손동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나민 지파에서 태어난 원순잡이 에훗은 모압왕에게 조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들의 손에 붙이셨다. 모든 일을 이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다. “지식과 능력이 전부 아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생각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한결음씩 나아가라 할 때 하나님이 일 하신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졸업식은 김덕수 스킨장의 학사보고와 자격증 및 상장, 스타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축사는 백성환 전도사(미주 권역장), 격려사 홍성학 목사(OC지부장)와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LA17)가 맡았다. LA27기 졸업생 중 최우수상을 받은 김금주 전도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헌신을 다해 지도해주신 김덕수 목사님과 선배들의 섬김에 감사한다”고 답사했다. 이의 수상자는 우수상 강진수 목사, 심주미 사모, 모범상 서순례 전도사, 개근상 강진수 목사, 서순례 전도사, 손남미 전도사, 심주미 사모가 수상했다. 생터사역원의 관한 자세한 것은 김덕수 목사(213-500-2948)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8면에서 계속> (다)매일의 일과 공동생활 단원들의 일상생활은 3-4시 사이에 기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침식사 시간까지 자유로운 기도와 독서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으며 식사시간에는 일체 침묵을 지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환자를 방문하는 일, 전도하는 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으나, 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여긴 것은 고전을 복사하는 일이었다. 저녁식사 후 8시까지 각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8시 반이던 취침시간으로 그날의 일과는 모두 끝났다. 주일이 되면 형제들은 숙소마다 집회를 열고 성경을 낭독한 후 성경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성경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형제들 중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학문 혹은 신학)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자유롭게 장시간동안 진지한 토론을 전개시켰다. 라)공동생활형제단 가입 형제단에 가입하여 공동생활에 참가하기로 희망하면 입단청원자의 건강상태와 정신력을 테스트하였다. 또한 라틴어로 문장을 자유자재로 읽고 쓸 줄 아는 것과 독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검토한 후, 적격자

로 인정을 받게 될 때, 1년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한 후 공동생활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확실히 공동생활형제단의 삶의 방식은 자율적이면서도 신의 통제가 있었다. 진지한 토론과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학문의 방식은 교황청의 교리적 성경해석이나 수직적이고 통제적인 관료행정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형제단을 이탈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으나,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원들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도모하였다. 마)현실의 신비와 거룩 추구 이들의 신앙 형태와 삶의 양식은 중세의 신비주의가 지나치게 현실을 배격하고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비현실적 신앙에 몰두하는 것에 반대하여 현실 속에서 신비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인 봉사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신비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 정적상태에 몰입하여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합하는 의미에서의 신비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노동을 즐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의 총체적인 삶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연결시킨 점에서 신비적이다. 바)영향력

형제단들은 기존의 수도원이나 사제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함으로써, 결국 1376년 그레고리 11세의 허락을 받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법규에 따라 준(儺)수도원체 교단을 빈 데 사임(Windeshheim)에 설립하게 되었다. 이 후 형제단들의 영향력은 화란과 독일의 어거스틴파의 전 수도원에 끼치게 되었다. 형제단들은 젊은이들에게 세심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경과 기독교 고전 연구와 필사료 대량의 서적을 복유함에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등교육 제도의 선구자로서의 활약도 하였다. 이들의 헬라어·라틴어 고전연구는 르네상스의 성경적 인문주의 또는 기독교적 인문주의의 형성을 위한 터전이 되었다. 나중에 인쇄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고전 연구는 종교개혁의 길을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형제단들이 세운 학교 중의 하나인 막테부르크 교회학교에서 루터는 14세에 1년간(1497-98) 공부한 적이 있었다. 루터가 성경을 접하고, 형제단의 경건생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을 이곳에서 조금쯤 배양한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east

퀸즈장로교회 임직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6주년에 앞서 12월 8일(주일) 오후 5시에 임직식을 갖는다.
▲문의: (718)886-404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2019 전도찬양집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2019 전도찬양집회가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세상 모든 사람아, 주를 경외하여라" "Stand in Awe!" 주제로 열린다.
▲문의: (718)229-0858

국제장애인의 날 행사

우리로잡은손 국제장애인선교회(대표 임선숙 사모)가 주최하는 국제장애인의 날 행사가 12월 5일(목) 오전 11시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353-3791

2019 사랑방 홈커밍을 위한 전도집회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가 주최하는 2019 사랑방 홈커밍을 위한 전도집회가 11월 24일(주일)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초대간증자로 배우 윤석화 안수집사가 초청된다.
▲문의: (718)565-6555

미동부 감신대 총동문회 모임

미동부 지역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고한승, 80학번) 모임이 12월 2일(월) 오전 11시 필라 등대교회(담임: 조병우 동문, 75학번)에서 열린다.
▲문의: (518)598-6380, 588-1372

하크네시아교회 다니엘김 선교사 초청부흥회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가 11월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다니엘 김 선교사 초청 부흥회를 갖는다. 시간은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4시30분 등 6회. 한편 동 교회는 17일(주일) 오후 4시에 설립 34주년 기념 임직예배를 갖는다.
▲문의: (718)229-9191

내 영혼을 살리는 집회

이상목 목사(에리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하는 2019총결산 내 영혼을 살리는 집회가 12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메릴랜드 시온감리교회(최현림 목사) 도시기도원에서 열린다.
▲문의: (443)306-3876, (410)963-1229

지휘 및 반주자 구함

뉴욕초대교회(미국장로교/PCUSA)가 1부 성가대(예배) 지휘 및 반주자를 찾고 있다.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예배이며 지원 자격은 1)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2)세례교인으로 지휘와 반주에 경험이 있는 분. 지원서류는 1)이력서와 2)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를 보내면 된다. 이메일 nycdchurch@yahoo.com
▲문의: (347)502-2571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청년연합예배에서 강사 제프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통을 선물로 바꾼 주의 십자가'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청년연합예배, 강사 제프현 목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다민족 목회 방향에 맞춰 지난 8일 다민족 청년연합예배를 개최했다.

"The Gift of Pain"(고통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EM담당 제프현(Jeff Hyun) 목사가 초청됐다.

8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연합예배는 김아란 사회로 다민족 경향팀의 찬양으로 시작돼 대표기도 이삭희, 성경봉독 혜린김, 특별찬양 하모니찬양대, 헌금기도 김도현 목사, 강사소개 김성국 목사, 설교 제프현 목사, 축도 천위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강사 제프현 목사가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전한다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란다 고 소개했다.

현 목사는 창세기 3장 16-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오히려 선물이 되게 하셨다"며 그 자신 5세에 어머니와 헤어져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상처를 갖고 살았지만 그 상처 안에서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고 강조했다.

현 목사는 "여러분에게 첫 고통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를 묻고 성경이 말하는 고통(pain)에 대해 설명하며 그러면 어떻게 그 고통을 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 요한복음 4장 6-7절을 인용해 사마리아 여

인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즉 그 여인은 고통을 숨기고, 도망가려하고, 마비시키려 하지만 그 고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

현 목사는 집회 말미에 32년간 헤어졌던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 만난 것을 간증하며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음을 고백했다. 현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고통을 느꼈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터치하고 치료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 나의 고통이 선물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했다.

한편 9일 새벽 7시에는 제프현 목사와 앤디는 목사(애틀랜타 다니엘기도원)가 초청된 가운데 '리더와의 조찬 및 대화'를 가졌다.

제프현 목사는 6세 때 아버지를 따라 이민 왔으며 남가주에서 USC를 졸업하고 탈북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했다. 또 2005년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영어권 교역자로 사역해 왔다(인터뷰 16면).

퀸즈장로교회는 한국어권과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등 4개 회중이 한 지붕아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미주내 한인교회 중 다민족교회의 샘플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민족을 위한 성전건축도 진행 중이다.
(유원정 기자)

회장 이준성, 부회장 김진화 이재덕 경선

뉴욕목사회선거관위 입후보자등록서류 심사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제 48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11월 6일 오전 10시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모여 심사했다.

선관위는 회장 후보로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 부회장 후보로 김진화 목사(뉴욕미래비전교회),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가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각 후보들의 조건서 내용도 공개했다(관련기사 16면).

또 선거관위는 이날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으며 목사회 회칙 제10조(자격)와 관련, '단 한 가지 사항이라고 어긴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안에 따라 후보탈락, 당선무효, 직무 정지(취임 후의 경우) 등의 제47회기 목사회 선관위의 기본 징계방침을 따를 것이며 아울러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총회에서의 투표결과에 절대 승복하고 법정 고소나 고발 등의 이의를

제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내용은 ▲입후보자 확정 공고 이후 1)일체의 금권선거(후원금 기부, 식사 대접, 회비 대납, 개별 모임 등)를 금한다. 2)개인 인터뷰는 후보자가 제출한 조건서로 대신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하여 갖지 않기로 한다. 3)선거운동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일체의 비방을 금한다. 4)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자는 편지, 이메일, 전화, 카톡으로만 자 소개와 더불어 목사회를 위한 소견을 밝힐 수 있다. 5)만약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발견되면 당선 후 1개월 내 선관위에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로 돼 있다.

뉴욕목사회는 11월 18일(금) 정기총회 공고 및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는 11월 25(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찬송의 옷을 입으라!"

동부개혁장신 2019 찬양의 밤 시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19년 찬양의 밤이 지난 6일부터 3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열린다. 올해 첫 행사는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설교는 김성국 학장이 "찬송의 옷"(사61:1-3)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중 하나는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라며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 한다. 성령 받은 자는 승리하며 근심이 없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의 옷을 바로 입자"고 말했다.

예배는 총무처장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은 학우,

성경봉독 김미선 학우, 말씀 후 2부 '뮤지컬/알렐루야'로 이어졌다.

신학교합창단은 같은 제목의 다른 곡 '주께 찬양드리세'를 시작과 끝에 불렀으며 '놀라운 신 주의 이름' '베들레헴, 갈릴리, 겠세마네' '주님이 주신 노래' '주께 찬양드리세' '영원히나 주만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주' 등 총 9곡을 연주했다.

신학 허윤준 목사의 광고 후 총동문회장 정기태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동부개혁장신 합창단 찬양축제는 13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일에는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2019 찬양의 밤이 지난 6일 뉴욕새사람교회에서 열렸다.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 제10회 아가페열방찬양제를 마치고 출연진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라!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 제10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한 제 10회 아가페 열방 찬양제가 11월 3일 오후 5시에 본 교회에서 열렸다.

이사라 양의 사회로 진행된 금번 찬양제에는 엘림크리스찬 밴드, 춤누리무용단, 전제사가 어린이, 서마미 월드뮤직앙상블, 김제이와 김자넷 부부, 정세라 등 한인뿐 아니라 중국교회와 남미교회에서도 참가해 수준 높은 연주와 찬양을 보여줬다.

김남수 목사는 "주님과의 첫 사랑이 그리워지는 가을밤, 돌

아보면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있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구름 기둥,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제 10회 아가페열방찬양제를 올립니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열 번째를 맞은 아가페열방 찬양제는 다민족 교회들이 참가하는 순수 찬양제로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유일하다.
(기사제공: 아가페장로교회)

뉴욕교협 부회장 입후보등록 접수

11월 12-20일 오후 4시 교협사무실

뉴욕교협이 11월 7일 제 46회기 부회장 입후보 등록 접수를 공고했다.

46회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4일 모임을 가졌다. 선관위원장 한재홍 목사, 법규위원장 이병홍 목사, 중경회장 신현택 목사, 특별분과 유상열 목사, 총무 이창중 목사, 서기 문정웅 목사, 실행위원회 이만호 목사, 이사회 김영호 장로, 평신도 이광모 장로 등 10명이며 참관인으로 회장 양민석 목사가 참석했다.

등록기간은 11월 12일(화)부터 20일(수) 오후 4시까지이며 등록 장소는 뉴욕교협 사무실(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21일 입후보자 서류심사를 거쳐 22일 임시총회 공고 및 후보를 발표한다.

한편 뉴욕교협은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12월 9일(월) 오전 10시30분에 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문의는 (718)279-1414 교협으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주님의식탁선교회 설립주년 맞아 단풍관광 및 육사견학

주님의식탁선교회(회장 이종선 목사)가 설립 7주년을 기념해 단풍관광 및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견학했다.

지난 11월 7일 오후 8시 출발, 12시까지 견학하고 오후 1

시에 플레밍 그릴 부페 식당(뉴저지 소재)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주님의식탁선교회)



뉴욕사모합창단 첫 연주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기도회로 모여 합창단 결성

뉴욕사모합창단 제 1회 연주회

뉴욕사모합창단 제 1회 연주회가 지난 10일 오후 5시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당장 김경신 사모(뉴욕초대교회)는 "뉴욕교협 50년 역사 속에 사모들의 연주회는 처음"이라며 "30여 년간 교파와 연령을 초월해 세계선교와 대한민국의 동포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회를 해왔던 사모기도회가 4년전 사모합창단을 결성하고 기도회를 마친 후 찬양을 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주회까지 열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주회는 안창의 목사의 개회기도 후 뉴욕사모합창단이 '영광' '사랑의 주 예수' '주께 감사드리자'를 불렀으며 이어 클라리넷 4중주, 사모중창단, 뉴욕장로성가단, 월드미션무용단의 워십댄스 등이 이어졌다.

뉴욕사모합창단은 '나 주께 기도드리라' '갈보리의 감사' '선하신 목사'를 불렀으며 헌금기도 이은수 목사, 헌금특송 이애실 소프라노, 뉴욕목사회합창단, 월드밀알오케스트라의 기악양상블 연주 후 뉴욕사모합창단이 합창가고 모든 출연진들이 '축복' '송축해 내영혼'을 부르고 전혜순 사모 광고, 방지각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사모합창단은 △단장 김경신 △부단장 전혜순 △총무 김자이 △부총무 최영미 △서기 오미례 △부서기 김영순 △회계 이옥남 △부회계 박영숙 △고문 안연주, 방영숙(이상 사모)과 이사장 김승희 목사, 단목 방지각 목사, 지휘 이다윗 목사, 반주 오미혜 사모, 파티들로 소프라노 24명, 알토 1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원정 기자)



'통일시대를 준비하자'

라구나 우즈 & LA 통곡기도회 개최

대한민국과 북한동포, 미국을 위한 LA통곡기도회가 10일 오후 4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목사) 분당에서 김경진 목사 사회로 열렸다.

이재학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본 기도회는 정지일 장로(기쁜우리교회 해외선교부) 대표기도와 박희민 목사(UTD-KCC 공동대표)의 설교로 진행됐다.

박희민 목사는 '통일시대를 위해 준비합시다'(겔37:15-17)라는 제목으로 "먼저 한국민족이 하나가 되어 힘과 실력을 키워야 복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고 탈북자도 형제자매로 받아"



LA 통곡기도회에서 박희민 목사가 '통일시대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들일 준비와 훈련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키워야 하고 국제 사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 통일시대를 위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제일 먼저 이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인의 증언과 간증 시간이 있었으며 특별찬양으로 LA 챔버과이어가 히브리 노래의 합창 'We are One'을 들려주었다. <이성자 기자>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및 피세원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열렸다

오렌지한인교회 설립43주년 및 피세원 담임목사 취임예배

오렌지한인교회 설립 43주년 감사 및 피세원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0일 오후 3시에 열렸다.

피세원 목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전병철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 찬양,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삼하6:10-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2부 취임식은 김만섭 목사(그리스밸리 CRC 교회)가 서약 및 공포했으며 여성찬양대가 축하를 불렀다. 이어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양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오정현 목사(서울사랑

의교회)의 축하영상이 상영됐다.

담임목사로 취임한 피세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OKC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다. OKC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배감격, 회복, 말씀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회를 꿈꾸며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동목 장로가 취임패를 수여했으며 남가주사랑의교회 교역자들이 특별찬양했다. 이날 예배는 피세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가정사역원 2019 패밀리 뱅킷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작은 겨자씨가 맺은 열매...

엘피스가정사역원 2019 패밀리 뱅킷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 2019 패밀리 뱅킷이 10일 오후 5시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이경민 간사 사회로 열린 패밀리 뱅킷은 문정란 목사가 찬양인도 했으며 박운송 목사가 환영인사 및 엘피스 패밀리 소개, 박성민 박사(APU부총장)가 만찬을 위한 기도했다.

만찬에 이어 열린 2부 순서는 문정란 목사가 찬양인도로 시작, 최숙희 사모 기도, 변명혜 박사(APU코리안 석사과정 프로그램 디렉터)가 격려사를 했으며 한의준 목사(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격려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김웅민 목사가 '일용할 양식'(마6:9-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웅민 목사는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된 모임이 많은 열매 맺게 돼 감사하다"며 "하나님이 이 사역을 허락하고 축복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맺어주신다"고 말했다.

김은주 사모가 사역보고를, 박운송 목사가 사역계획을 발표했으며, 김경숙 간사가 회계보고 했다. 이어 오석남 사모와 황화진 집사가 간증했고 최미선 대표(하음연구소)가 사역 소개를, 김웅민 목사가 색소폰 연주를, 반윤선 권정아, 최정우(이상 LA복음연합감리교회)가 특송했다.

이날 모임은 문정란 목사가 엘피스 사역에 대한 합심기도했으며 김낙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엘피스 가정사역원은 2020년 사역은 1월 온두라스 세미나, 3월 사모 힐링세미나(하와이), 5월말 힐링캠프, 10월중 러시아 가정세미나 10월 중 캄보디아 선교사 사모대상 힐링세미나, 미얀마 선교사 사모대상 힐링세미나가 예정돼있다. 그리고 2021년에 몽골 선교사 사모 대상 힐링 세미나, 튀지지 아프리카 현지인 가정세미나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 <박준호 기자>



동문교회 교회연합 고귀남 목사위임 및 임직예배

복음화의 확장, 밀알로 자원한 임직

동문교회 교회연합 고귀남 목사위임 및 임직예배

동문교회 교회연합, 고귀남 목사위임 및 임직예배가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렸다.

고귀남 목사는 "연합목적은 복음화의 확장, 임직은 그 일에 이분들이 한 알의 밀알 됨에 자원하고 협력해서 하게 됐다. LA를 향해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동문교회와 LA연합교회가 연합해 열리게 됐다. 연합배경은 LA연합교회와 동문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라는 것에 뜻을 모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고귀남 목사는 "동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있다. 이러한 표어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가주의 후배 동역자들이 목회하고 싶은 교회상을 남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회장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나정기 목사(증경노회장)가 기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김영훈 목사(LA참교회 담임, '북한동포들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강태광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총무, '탈북자들과 새터민들을 위하여'), 샘신 목사(오직예수선교회 담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하여')의 기도인도에 따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이날 탈북자를 위한 헌금을 드렸으며 박희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금번 통곡기도회는 UTD-KCC(그날까지선교연합)와 기쁜우리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독교일보와 미주 CGN TV가 후원한 가운데 8일에는 라구나 우즈 통곡기도회로 진행돼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가 설교를 맡았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회계 및 킥북 실무과정 공개강좌 안내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회계와 킥북(QuickBooks)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가 주관하고 그레이스미션 대학의 후원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 익스텐션 강의실(3020 Wilshire Blvd., LA)에서 개최한다. 본 강좌는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기본 개요와 함께 전문인 선교에 대한 직업소명론에 대한 강의와 회계원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킥북 프로그램을 직접 랩탑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무교육이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제임스 구 교수.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100달러(첫째 강의는 무료, 강의책자 및 교육용 CD 포함)이며 수강료는 선교회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선교회 홈페이지(www.churchhomepage.org)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과 비용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714)393-4595(Center), (213)529-4147(LA Extension)

굿네이버스USA 2019 드림토크콘서트

굿네이버스 USA(회장+이일하)는 유튜브 팔로워가 80만 명이 넘는 김미경TV, '드림온' '언니의 독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등의 베스트셀러 책으로 유명한 스타강사 김미경 씨와 함께 2019 드림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 "꿈과 함께 의미 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15일(금) 저녁 7시30분 열마인 온누리교회(박신용 목사), 16일(토) 저녁 7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77)499-9898

제 38회 남가주 찬양합창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하는 제 38회 남가주 찬양합창제가 17일(주일) 오후 6시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개최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는 물뚫산(장애인 선교)을 후원하게 되며 10팀의 찬양대와 합창대가 참가한다. ▲문의: (310)381-9835

나성영락교회 건강박람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과 함께 제공하는 건강박람회를 17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분당 앞에서 갖는다. ▲문의: (562)922-4689



제1회 DLMC 세미나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제 1회 DLMC 세미나 네 커플 매칭

2회는 44-59세 대상 12월 28-29일 주님의영광교회

제 1회 DLMC(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가 지난 11월 2일과 3일 양일 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호프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7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발족한 글로리싱글즈커뮤니티(Glory Singles Community)의 공동대표인 신승훈 목사와 이병만 장로가 기획하고 주관한 행사로서 결혼을 앞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 건축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만 장로는 "우리 사회에 결혼을 기회하는 독신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고자 하나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크리스천 미혼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0여명이 넘는 크리스천 청년 남녀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게임과 식사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세미나 진행자들은 두 번의 세미나 후 충분한 토론 시간을 통해 서로의 성품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

자선했다. 첫째 날은 신승훈 목사가 "성경적 결혼관과 좋은 배우자 되기"라는 주제로, 둘째 날은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성경적 가정 규범과 실제적 적용"이란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인도했다. 세미나를 통해 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서로 마음에 드는 대상을 탐색하고 비공개적으로 적어 내게 했을 때 4명의 커플이 탄생했고 모두들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짝을 찾지 못한 청년은 이후 이메일 교환을 통해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제 2회 DLMC세미나는 44-59세 연령을 대상으로 12월 28-29일, 오후 4시부터 주님의영광교회 호프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글로리싱글즈커뮤니티>



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예 문화 출간 포럼

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예 문화 출간 포럼

우남 이승만 대통령 서예 문화 출간 포럼이 11월 9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의 말씀새로운교회에서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 회장이며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 김희창 박사의 주관으로 열렸다.

김택규 목사 사회로 열린 포럼은 공동저자인 김희창 박태홍 권성주, 이인수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책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승만기념사업회 LA지회장 최화량 목사가 축사했고, 특별기도는 한국지도력을 위해 최정학 부회장이 했다.

또한 리더십 감사장 수여에 이국봉 원로목사회장, 박태홍 미주서예가협회회장에게 수여했다.

한편 포럼전에 열린 1부 애국예배는 남가주한인 기독교 원로목사회(회장 이국봉 목사) 주관으로 열렸으며 인도자는 홍준만 목사, 기도는 김창식 목사, 특송은 임화자 전도사, 설교는 김희창 목사(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가 '소통하는 파워 리더십'(고전9:18-27)이라는 제목으로, 축도는 최화량 목사가 맡았다. <기사제공: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 연구소>

“창원 동성애축제, 맞불 집회 열겠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등 80여 단체모인 경남도민연합 기자회견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원대연)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열리는 경남퀴어행사에 반대하며 같은 날 맞불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연합은 “국내 동성애자들은 보건과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며 “올바른 성 가치관, 남녀 간의 결혼, 도덕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청과 성산아트를 주변 도로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한 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참여 예상 인원은 3850명 정도로 알려졌다.

“4개 교단 전국장로회 아름다운 연합사역”

임원초청 간담회 열고 캄보디아 교회건축 협력사업 논의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백서 대신 전국장로회연합회 임원들이 예장합동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윤선술 장로)의 초청을 받아 11월 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4개 교단 전국장로회연합회 교류는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네 차례의 간담회와 주일사업에 대한 협력, 특히 복음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교회를 건축하는 등 아름다운 연합을 이어갔다.

4개 전국장로회연합회 모두가 조만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어, 현 회기의 임원간 교류는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초청자 대표로 인사한 윤선술 장로는 “4개 교단 전국장로회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며 한국교회에 의미있는 연합이라 생각한다. 보다 친밀하고 내실있는 연합을 이뤄가도록 계속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3개 교단의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들 역시 인사를 통해 지속적인 연합과 교제의 장이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배와 간담회,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지난 9월에도 부산에서 퀴어행사를 가지려 했으나 해운대구청이 ‘도로 점용 불허’ 결정을 내려 취소됐다. 동성애 옹호·조장 행사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는 지난 6월 서울광장 일대에서도 있었다. 당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대회장 이주훈 목사) 측 참가자들은 “동성애 치유 회복이 정답이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 불가능도 아닙니다”라고 써진 팻말과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윤선술 회장 사회, 회장 흥선인 장로(예장통합) 기도, 서기 조종길 장로(예장합동) 성경봉독, 김형국 목사(하양교회)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김형국 목사는 설교에서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섬김에 있어 어시스트 역할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신문 사장 이순우 장로가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사장은 “형제애를 갖고 4개 교단의 장로님들이 잘 연합해 하나님나라를 위해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고 권면했다.

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신임 공동대표이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CTS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다음세대를 부흥시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CTS는 이날 공동대표 이사 이·취임 감사예배에 앞서 임시주주총회와 102회 이사회를 열고 공동대표이사 선임 건과 사장 연임 결의 건 등을 다뤘으며, 2019년 주요업무와 2020년 사업계획 등도 보고했다.

회 12개 주요 교단과 협력한다. 공동회장 최나중 원로목사는 “10대 청소년이었던 다툼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다음세대가 일어나려면 각 교회 목회자들이(영적으로) 깨우치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세본은 5년 노하우를 통해 체계화한 어린이전도 전략과 교회학교 운영 매뉴얼을 한국교회에 공유하기로 했다. 전문교사 세우기, 부장 시스템, 무학년제, 능력의 찬양, 축제의 예배 시간, 소통하는 셀 등 부흥하는 교회학교의 12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다세본은 J-DNA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교회의 신청을 받고 있다. 12개 교단별로 10개 교회씩 120개 교회를 1차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1-2월에는 각 교회학교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국순회 무료 설명회’도 연다. 다세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들과 소통하고 내년 11월 각 교회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 6개 지파는 고양으로, 전라 지역은 광주지성성으로, 경상 지역은 안드레 지파 연수원으로 총집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내부에서 수료식은 12개 지파별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라면서 “평소 신천지로 의심되던 사람이 이날 교회에 나오지 않

“낙태는 반생명 문화...교계가 적극 막아야”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인터넷 언론사인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점을 임신 22주로 판단했는데,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에서 이 결정이후 69년 2만건에서 80년대 150만건으로 낙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장은 “세상은 태아의 기능 여부에 따라 생명체·인격체로 구분하지만,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가리켜 아이로 표현한다. 이 말은 어린아처럼 인격을 지닌, 축복 사랑 보호의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페미니스트들이 유포시킨 낙태 옹호 논리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신원장은 “성경은 배아 때부터 생명이 있으며, 몸과 혼, 영이 같이 있다고 말씀한다. 다만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일 뿐”이라면서 “낙태 옹호론자의 주장처럼 태아는 산모의 생명보다 절대 열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 흐르는 반기독교적, 반생명적 기류를 방관해선 안 된다”면서 “현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는 낙태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악을 최소화하는, 덜 악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원 흥신대 신대원 교수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신현일 헤븐리웨딩 박사, 차희재 프로라이프의사회 대표, 최경화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는 이날 토코스를 갖고 낙태가 여성의 행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명 중시 관점에서 태아를 죽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범종교적 여성단체를 설립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유포한 낙태옹호 논리에 실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람데오닷컴 정주재 발행인은 “낙태 동성애 안락사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를 넘어 반생명 문화가 한국사회를 삼키려 한다”면서 “신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악은 생명을 반하는 것이다. 육신까지 망가뜨리는 반생명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와 가정, 교회,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행동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연합으로 귀한 열매 맺자”

예장합동·통합총회임원 4일 다섯 번째 연합모임

예장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과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총회임원들은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다섯 번째 아름다운 연합을 이어갔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 교단 총회임원들이 한국교회 현안을 논의하고, 연합과 협력을 모색하는 모임을 정례적으로 갖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특히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고 교회를 향한 도전이 거센 시대 상황에서 교회의 보호를 넘어 한국교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독특한 연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양 교단이 WCC 문제로 분열한 지 6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인지 이날 모임에서는 한국교회와 직면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분열의 아픔과 이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실질적인 연합으로 나아가

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예장통합 총회임원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며 시작됐다. 예배에서 ‘주의 일에 힘쓰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중준 총회장은 “한국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는 양 교단이 다음을 넘어 같음을 찾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잘 세워 가면 좋겠다”라고 했다.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양 교단은 같은 뿌리를 가진 교단으로서 극단으로 치닫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교회와 민족을 향해 주어진 사명을 연합해서 잘 감당하자”며 인사했다.

한편 오찬 후 가진 간담회에서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이 내년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손양원 목사 순교 70년을 맞는 의미가 있는 해인만큼 양 교단이 함께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北주민 재판 알고 송환, 사지로”

정통법률가모임, 북한주민 추방에 항의성명 발표

정의로운통일을생각하는법률가모임(이하 정통법률가모임)이 8일 북한주민 추방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통법률가모임은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송환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며 “이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첫째,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영내로 들어온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긴 점,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탈북어민 두 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야지, 곧바로 북송한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북한주민을 제 마음대로 북한으

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단체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말한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선교적교회 사역경험 공유

선교적교회 네트워크 주최 세미나

선교적 교회 현장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린다(포스터). 성음교회, 바람빛교회, 소울브릿지교회, 그십자가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담임

였다면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신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장도 “광주만 해도 신천지 신도들이 관광버스 100여대를 동원해 집결했다”면서 “이번에 10만명이 수료한다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존 신도까지 총집결하도록 명령했을 것이다.

목사와 성석한 장신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이야기와 학문으로 풀어나지 못한 선교적 교회의 실제 사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성 교수는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으로 한국형 선교적 교회의 길을 개척해온 공공신학자다. 성음교회 허대광 목사는 전통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문화사역자로 지역문화공간인 성음아트센터를 운영해온 경험을 소개한다. 바람빛교회 이남정 목사는 ‘선교적 교회의 창조적 인 페르다임을 만들어가는 게 임체인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청소년이 모이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소울브릿지교회 반승환 목사, 세대통합예배와 라임작은도서관이 특징인 그십자가교회 손연국 목사도 선교적 교회를 추구해온 목회 경험을 소개한다. 장로 정치의 민주적 구현을 시도하는 높은뜻하늘교회 한용 목사는 ‘큰 신발을 신은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국선교적교회네트워크 측은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신뢰도마저 바닥으로 떨어진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발견하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요청에 용기 있게 대담하는 삶이 선교적 교회”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 방법은 한국선교적교회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전도·교회학교 노하우, 전국교회와 공유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출범

위기의 교회학교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다세본·대표회장 최승일 목사)가 출범했다. 초교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협력한다. 공동회장에 김학중(꿈의교회) 이성화(서문교회) 신상범(새빛성결교회) 천환(예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원로) 김원남(낙원교회) 목사 등을 선임했다. 다세본은 키즈처치리바이벌(구 교회학교성장연구소·대표 박연훈 목사)이 최근 5년간 진행한 ‘학교 앞 전도’ 등 현장에서 결실을 본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J-DNA’ 시스템을 전국 교회학교에 전수한다.

다세본은 12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역과 비전,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최승일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십수 년째 교회학교 폭감의 위기 속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 600만명에서 10년 후엔 200만명 아래로 줄어 들 것”이라며 “구약성경 사

사기 2장 10절에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좇은 사건이 밀려오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도, 관심을 요청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다세본이 주력할 사역은 J-DNA 전수다. 예수(Jesus)의 DNA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이는 다세본 사무총장 박연훈 목사가 20여년간 ‘어린이 은혜 캠프’를 이끌어오며 정리한 교회학교 전도 전략이다. 박 목사는 특히 2015년부터 전국 7개 교회(광주 새희망교회, 순천 주성교회, 용인 남서울비전교회, 부산영락교회, 부산 은혜교회, 당진감리교회, 인천 예일교회)의 교회학교 코칭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부흥을 이끌었다. 31개 초등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만나는 ‘별박이 전도’를 펼쳐 1200여명의 어린이를 교회로 인도했다.

다세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등 한국교

지난 10일 ‘추수관’ 의심성도 교회출석 안했다면...

“신천지 신도 가능성” 신현욱 신천지대책연합대표 주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로 의심되는 사람이 지난 10일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신도일 가능성이 크다. 신천지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 A 전시장과 광주 베드로 지파 지성전, 부산 안드레 지파

연수원 등에서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연합수료식’을 개최했기 때문에 교회에 잠입한 신천지 신도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연합대표는 12일 “신천지 신도라면

채플린 임상목회 (34)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장기기증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 출근을 해보니 책상 위에 예쁜 카드 한 장이 우송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텍사스 지역 장기기증센터의 하나인 STA에서 보내준 카드였습니다. 지난 주 우리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장기기증으로 말미암아 4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이 기증이 성사되도록 애써준 채플린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은 카드였습니다. 지난주는 북부 텍사스에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 유난히 교통사고 환자가 많았고, 최고 응급 수준인 Trauma Level 1 환자들...

뇌사판정이 나고 임종완화 간호사와 함께 부모님들을 면담했고, 장기기증에 관한 힘든 이야기를 건네며 아들의 죽음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이어졌을 때 한 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천국환송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가족들만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중환자실을 나와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전화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침내 결심하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즉시 뛰어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한참동안 두 분을 안아드렸습니다. 지나 두 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도 부모님의 결정에 기뻐할 겁니다. 힘든 결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센터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제 웬지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아들을 편안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담당의사와 장기적출팀의 코디네이터 간호사와 통화 후, 당일 저녁 7시 호흡기를 떼고 장기적출을 한다는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병원 측 리더십과 연락해서 즉시 Walk of Honor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중환자실과 장기기증 팀 의료진 및 채플린실, 사회복지사실 직원들이 병원 수술실에서부터 응급실 정문 앞까지 양 쪽으로 도열해서 이송되어 나가는 STA 장기기증 및 수송팀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하며 존경과 예를 갖추는 의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헬기가 도착했고 달라스 시내의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한 대기자들이 수술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기 적출과 이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인의 부모와 가족들의 관대한 결심으로 인해 무려 4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인과 그 가족의 아름답고 숭고한 결정은 병원 내에 마련된 메모리 열가든에 이름이 새겨지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청년과 그 가족의 깊은 믿음에서 가능했던 기증을 지켜보시면서 흐트란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계나 아시안 가족들은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부모가 물려준 육신을 어떻게 훼손해서 장기를 기증하느냐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기기증운동이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원을 해봅니다. tdsparc@gmail.com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예배
배현찬 목사 저서 "선교적교회..." 출판기념회도 가져

선교적교회(Missional Church)로서 공동체적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온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지난 11월 3일 오전 11시 설립 2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설립목사로 20년을 한결 같이 섬겨온 배현찬 목사와 교우들은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 Justice)라는 표어로 교회공동체적 사명을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으며 선교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20년을 기대하며 다짐했다.

1999년 11월 첫 주일 설립 이래 12회째 인종화합음악제(International Music Festival)를 주최해 흑인교회, 히스패닉교회, 백인교회 등과 함께 지역사회 인종화합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또한 매년 가을 한국음식축제(Korean Food Festival)를 진행하며 긍정적인 한국문화의 장을 열고 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 다운타



주 예수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예배를 배현찬 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운의 VCU대학 인근 홀리스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매년 여름마다 일주일씩 50여명의 홀리스를 초청해 숙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

또 본 교회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PCUSA)에 속한 유니온신학교의 한국 신학생 15여 명을 후원해왔다. 그리고 3명의 선교사를 러시아, 도미니카, 케냐에 파송했으며 우간다, 페루에 있는 70여 명의 아동구호를 13년간 계속해오고 있다.

그 외 매년 여름 아팔라치

아 산맥의 가난한 빈민촌을 찾아가 미국인들과 함께 노동봉사를 하면서 교회 인근의 가난한 독거노인 주택보수를 10여년간 계속해왔다.

2011년 이러한 사회선교 사역으로 미국장로교에서 한인교회로서는 유일하게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4년 동안 미 전역에서 참가한 선교적교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담임 배현찬 목사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로서 선교적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되는 이 교회의 사역과 목회철학에 대해 저술한 "선교적 교회 목회론(Ministry of Missional Church)"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책소개: 본지 1754호 16면 참조).

선교적교회의 이론적인 대부인 프린스턴신학교 데럴 구더의 권두언과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신학자인 한국국 교수(장로회신학대학),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 그리고 미국의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등이 추천한 이 책은 이론과 실제의 종합적인 선교적 교회의 로드맵으로 평가되며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월간지 '월간목회' 11월에 '화제의 책'으로 소개됐다.

이날 설립 기념예배는 제임스노회 총무인 프레드 홀브룩(Fred Halbrook) 목사가 설교했으며, 본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찰스 그랜트 목사(Charles Grant)가 축사했다.

예배 후 오전은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당회원들의 특별순서가 있었으며, 담임목사의 "선교적 교회 목회론" 사인회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주 예수교회)

세기총 제 20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도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제 20차 통일 기도회가 지난 11월 3일 오후 3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믿음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선교사들과 세기총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안태룡 목사가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인도네시아지부장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안태룡 목사가 환영사를 하고,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회사를 했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대회사에서 "전 세계에 75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이들 지역의 교회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서 교민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표기도에 세기총 후원 이사 최순덕 목사, 성경봉독(삼하5:1-5)에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의덕 목사, 특송에 최숙진 사모, 세기총 법인이 사장 고시영 목사가 "다윗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헌금기도에 김용광 목사, 특별기도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세기총 후원이사 정병희 장로가,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와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교민교회 김재봉 목사가, "헬벳과 굴주리는 어려운 이웃들과 북한동포들을 위하여" 해피센터 최원금

목사가, "3만 해의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에베소교회 박성오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이어 축사를 한목협 직전 회장 이명호 목사가 감사장을,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기도회 준비위원장 안태룡 목사에 전달했다. 사회자의 인사와 광고가 있은 후 "통일의 노래"를 다 함께 손을 잡고 부른 후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재정 목사



세기총이 진행하는 제 20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목사가, "3만 해의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에베소교회 박성오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이어 축사를 한목협 직전 회장 이명호 목사가 감사장을,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기도회 준비위원장 안태룡 목사에 전달했다. 사회자의 인사와 광고가 있은 후 "통일의 노래"를 다 함께 손을 잡고 부른 후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재정 목사

축도로 제20차 통일기도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행사를 마친 후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 지부장 안태룡 선교사가 설립한 '하라반이다'(아름다운 소망)신학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선교현장을 돌아보는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편 세기총은 2020년 1월부터 평화통일기도회가 미국 뉴저지, 샬럿 등지에서 계속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

자비량 선교세미나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12월 9일(월)
10:30am-2:00pm

로텍스호텔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323)734-1001

주최: 크리스천비전신문사 대상: 목회자, 선교사, 사모, 평신도 리더 강사: 김영관 목사
주관: 세계제자훈련선교회 등록: 선착순 100명 / 등록비: 무료(뷔페식 점심 제공)
후원: OC한인여성목사회 / 비전복음방송(AM1540) 문의: (323)934-7500 / (714)390-9197

영어로 보는 성경 (4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Mark 10:43-45

42)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43)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44)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NIV 1984)

WORD & IDIOM

* be regarded as ~: ~로 여겨지다 * Gentiles: 이방인들, 이교도들 * lord: 주인으로서 행동하다 * lord it over ~: ~를 지배하다, 좌지우지하다, ~위에 군림하다 * high officials: 고위층들, 고관들 * exercise authority over ~: ~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다, 권세를 부리다 * Not so with you: 너희는 그렇지 않다 * Instead: 대신(에) * ransom: 속죄물 *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하여

GRAMMAR

42)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예수가 그들을 함께 부르고 말하였다.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너희가 안다 <(those)이하를 <(as ~)로 여겨지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다스리는 자들(로)

그들을 좌지우지 한다(그들 위에 군림한다),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그리고 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한다. => 예수께서 그들을 함께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방인의 통치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이방인들)의 고관들이 그들(이방인들) 위에 군세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다.

* <You know that ~>에서 <that>은 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those) 다음의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those)를 가리키며 <(who are as rulers of the Gentiles)>는 <(those)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주어(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사절은 형용사의 기능을 갖는다.

43)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너희는 그렇지 않다. 대신에 누구든 원하다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되는 것(을) must be your servant,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44)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누구든 원하다 첫째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 <(whoever)>는 복합관계대명사로 <(anyone who)>와 같은 의미이다. <(want)다음의 <(to+V(Be) ~)>는 <~을 하는 것, ~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다. Ex) I want to worship the Lord(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be a worshiper(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조차도 섬김 받는 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but 이하 때문에),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그러나 섬기는 것을 위해 그리고 그의 생명을 주는 것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서 => 왜냐하면 인자조차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서 그의 생명을 주기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 <(For)>는 44절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의 <(to 부정사) 즉 <(to be served, to serve, to give)>는 모두가 인자가 오신 이유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 <~ 가 아니라 ...이다, 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not ~ but ~)>의 용법을 숙지하여 해석에 적용하라.

STUDY & THOUGH

■ 43절의 <(Not so with you)>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42절에서 권세 잡은 자들과 같은 권력의 남용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권력을 얻으려 하며, 일단 그것을 얻고 나면 그 힘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억누른다고 주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행동, 즉 섬김의 도를 추구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Anyone who follows Jesus to expose the life of the Lord our Savior.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행함있는 믿음이란?(약2:18-20)찬500장

바울이 참 믿음의 삶을 나무 상장으로 비유한 것처럼(골2:7) 야고보 역시 생명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18). 보이는 잎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뿌리의 진액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견고한 삶의 씨앗입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마16:6-17). 둘째, 행함은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입니다(19). 뿌리의 영양이 잎과 열매에 미치는 것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이들은 상호의존적입니다(20). 믿음이 행함의 씨앗이고 행함이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윤리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믿음이 치명상을 가져옵니다. 칭의는 성화의 씨앗이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화 아브라함이 보인 참 믿음(약2:21-23)찬97장

야고보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인 예를 증거합니다. 첫째, 그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을 때 의인으로 인정하셨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23).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는 자체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 곧 하나님의 베품으로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23).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칭의는 신분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그 후 그의 믿음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21-22). 이런 행위는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서로 참 믿음이 참 행함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수 라합이 보인 참 믿음(약2:24-26)찬343장

그 증거는 라합에게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라합은 광야교회,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둘째, 그 믿음은 왕명을 거절하고 정탐꾼을 쫓아내고 그들의 도주를 도와주는 목숨내던 담대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25). 이처럼 참 믿음은 하나님

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서도 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헌신으로 나타난 실예입니다. 셋째, 이런 행함 있는 참 믿음이 자기 식구를 모두 구원시켰습니다(행16:31).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편에서 서서 자기들처럼 남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열정을 가집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 될 수 없습니다.

목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약3:1-6)찬265장

믿음과 행함이 하나됨을 신자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1-2). 6절, 말의 도구인 혀를 불, 불의 세계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지옥불과 같다는 비유는 말의 절제에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말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의 변화가 없으면 경건생활에 치명상을 맞습니다. 둘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이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3). 거친 말을 잘 달리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듯이 신자는 침묵정진을 좋아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할 일입니다. 셋째, 배의 작은 키가 광풍 속에서의 항해를 통제하듯이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의 욕의 부패성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준 다른 표현입니다. 말의 절제로 온전한 신자가 됩니다.

금 말의 절제에 집중할 이유(약3:7-11)찬393장

야고보는 경건생활에 말의 절제의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첫째, 혀는 피조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7).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생물은 길들이나 혀는 길들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욕의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갈2:20). 위로 내리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욕을 죽음으로 넘기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혀는 악독

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기 때문입니다(8). 씬 없는 악독이 가득한 것도 모두 욕의 부패성과 직접 관련되기에 혀를 통제할 때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은 외식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외식의 삶으로 쉽게 나가게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9-10)가 한 샘이 잔물과 단물(11)을 솟아내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토 참된 경건의 열매(약3:12-14)찬85장

야고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성장으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됨을 설명합니다. 첫째, 선 행입니다(13). 경건은 그 바탕이 모두 착함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이라고 말한 바울의 가르침이(엡5:9)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결실하게 된다(눅8:15)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은혜 받으면 먼저 착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의 온유함

입니다. 그 착함은 무지한 태도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진리를 따라갑니다. 무골호수 같은 삶에서 벗어나 기준과 규도가 있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만든 자기자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위의 선행이 우리가 추구할 일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제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양양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076(교우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82)2-996-9988, Fax.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Tel.(82)2-3142-8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안암제일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오후 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142-6881, Fax.(02)1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인/터/뷰

제프 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EM)

“신앙전수, 예수의 전인적 제자 만들기”

“1세들의 신앙 유산을 2세들에게 전수하게 하는 것과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전인적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를 비롯해 2세 사역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과 9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다민족 청년연합예배 강사로 뉴욕에 온 제프 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EM)가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잠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6세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현 목사는 자신을 '1.75세'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라 한국말이 서툰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현 목사의 한국어는 의사전달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현 목사는 기독교 분위



제프현 목사

“일본 선교사였던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아내와 함께 일본선교를 하려고 파송단체에서 훈련도 받았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리라”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현 목사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To be a Spirit-filled community of fully-committed disciples who

1세와 2세가 한 가정처럼 교회 세우길 신학과 성경 위에 ‘온전’ 하도록 훈련

에서 성장해 어릴 적 기도원에서 첫 번째 콜링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는 너무 어려 말씀을 깊이 몰랐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했지만 대학 2학년 초에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때, 새로 부임한 전도사와 일대일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단기선교까지 가게 되면서 현 목사는 사역자의 길로 다가서게 된다.

멕시코 오하가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은 현 목사를 목사로 부르시고 USC대학을 거쳐 탈봇신학교를 다니며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게 된다.

오하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대학부 사역자와 연결되면서 남가주사랑의교회와 연을 맺었지만 작은 교회에서 성장해온 현 목사는 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결혼하면서 선교의 비전도 갖게 됐다.

게 됐고 결국 남가주사랑의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현 목사는 한인교회들, 특히 EM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가 교인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성인 교인들도 담임사역자 교체에 상처를 받는데, 청소년 대학부 교인들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현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 오면서 불평하며 참석했던 첫 40일 특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1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게 됐다고 말했다.

현 목사는 “교회는 가정과 같죠. 1세와 2세, 3세가 한 가정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

impact the world)라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비전처럼 ‘온전함’은 텔리어스(헬라이어, whole, 온 마음뿐 아니라 하트(heart)로 다가가는 전인적 유사역이 필요합니다. 신학과 성경 모두 중요하나 그 위에 전인적 제자훈련이 되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 라이프 메시지로 삼고 있다고 밝힌 제프 현 목사는 2005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 부임해 지난 14년간 전임 김승욱 담임 목사부터 현 노창수 담임 목사까지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며 이 시대에 맞는 제자훈련을 감당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현스텔라 사모와 사이에 엘리, 엘리야, 엘레나 1남2녀가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회장·부회장 후보 출마소견서

회장 후보 이준성 목사, 부회장 후보 김진화, 이재덕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11월 8일 제 48회기 회장 부회장 후보자들을 확정 발표하고 제 48회기 정기총회를 공고했다[관련기사 10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으며 각 후보자들은 소견서를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들의 소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위가 서류심사를 위해 모였다. 왼쪽부터 김원기 선거위원장, 박시훈 목사, 김기호 목사, 심화자 목사.

즐거운 목사회, 배우는 목사회, 영적향상의 목사회

회장후보 이준성 목사



교회: 양무리교회
경력: 46회기 총무
47회기 부회장

우리 목사회는 5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친목단체로서 모든 목사님들이 협력하여 섬기는 바 그 목적에 부합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1. 즐거운 목사회: 친목 위주의 행사를 통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 배우는 목사회: 세미나와 기도 운동을 통하여 목회

자 재교육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겠습니다.

3. 영적 향상의 목사회: 서로 섬기고 한 지체로서 뉴욕 사역을 위하여 서로가 성숙해지는 목사회로 이끌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걸맞은 목회자 상을 세우면서 다양한 종말의 징후군의 폐해 속에서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뉴욕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개인교류 모임확대, 각종 베네핏 공유



교회: 미래비전교회
경력: 42,3회기 감사
44회기 서기
47회기 총무

부회장 후보 김진화 목사(기호 1번)

- 1)목사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줄이고 개인교류 모임을 확대한다.
- 2)뉴욕목사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교류를 갖고 시와 주정부로부터 목사회원 베네핏을공유한다.
- 3)시니어 목사님들을 위해서 은퇴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정부의 제공된 각종사안

을 제공한다.

4)교회와 사역에 중요한 무료과킹터, 비영리단체등록, 병원자유출입 등을 제공한다.

5)원주민선교, 오지선교, 다문화 선교를 위해 재정지원으로 돕는다.

6)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병상에 계시는 환우목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위문한다.

7)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가 대형교회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8)목사의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회 연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복음전도, 선교, 2세 교육 추진



교회: 뉴욕사랑의교회
경력: 37회기 서기
38회기 총무

부회장 후보 이재덕 목사(기호 2번)

세계 제일의 도시인 뉴욕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를 발족케 하셔서 48년의 세월 속에 목사님, 성도님, 언론관계자들이 연합하였습니다. 목사회 부회장으로 출마한 동기는,

- 1)목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2)목사회가 연합하여 복음전도 사역 추진

3)목사회가 연합하여 선교사역 추진

4)목사회가 연합하여 2세 교육 추진

5)목사회가 연합하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원정 기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화장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센트럴 애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